

2014년 보건산업 국제경쟁력 분석

[경영성과편]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KHIDI

자체-산업일반-2014-57

청렴  세상

2014년 보건산업 국제경쟁력 분석 경영성과편

2014 · 12

제 출 문

이 보고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4년 자체사업인 『보건산업 국제경쟁력 심층분석』 사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 12. 3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 장 정 기 택

-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연구 책임자 : 서 건 석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 연구원)
- 연구 자 : 신 유 원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 연구원)
박 종 숙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 연구원)
윤 주 영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 연구원)
최 광 식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 연구보조원)

차 례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 1

제2장 국내외 보건산업 동향 / 4

1. 제약 산업	4
2. 의료기기 산업	7
3. 화장품 산업	11

제3장 보건산업 경영성과 분석 / 15

1. 제약 산업	15
2. 의료기기 산업	31
3. 화장품 산업	47

제4장 주요 결과 및 요약 / 55

1. 제약 산업	55
2. 의료기기 산업	57
3. 화장품 산업	59

• 부록 / 63

표차례

표 2-1	세계 제약산업 지역별 시장규모	5
표 2-2	제약산업 국가별 시장규모	6
표 2-3	제약산업 국내 시장규모	7
표 2-4	세계 의료기기산업 지역별 시장규모	8
표 2-5	의료기기산업 국가별 시장규모	9
표 2-6	의료기기산업 국내 시장규모	11
표 2-7	세계 화장품산업 지역별 시장규모	12
표 2-8	화장품산업 국가별 시장규모	13
표 2-9	화장품산업 국내 시장규모	14
표 3-1	제약산업 주요국가 분석대상 기업 현황	17
표 3-2	제약기업 상위 20개국 매출액	20
표 3-3	제약산업 주요 국가별 영업이익,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22
표 3-4	제약산업 주요 국가별 R&D투자,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23
표 3-5	제약산업 상위 20개 기업 매출액	25
표 3-6	주요국가 제약기업 매출액 상위기업	26
표 3-7	주요 제약기업 영업이익,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27
표 3-8	주요국가 제약기업 영업이익 상위기업	28
표 3-9	주요 제약기업 R&D투자,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29
표 3-10	주요국가 제약산업 R&D투자 상위기업	30
표 3-11	의료기기 주요국가 분석대상 기업 현황	33
표 3-12	의료기기 기업 상위 20개국 매출액	36
표 3-13	의료기기 주요 국가별 영업이익,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38
표 3-14	의료기기 주요 국가별 R&D투자,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39
표 3-15	의료기기 상위 20개 기업 매출액	41
표 3-16	주요국가 의료기기 매출액 상위기업	42
표 3-17	주요 의료기기 기업 영업이익,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43

표 3-18	주요국가 의료기기 영업이익 상위기업	44
표 3-19	주요 의료기기 기업 R&D투자,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45
표 3-20	주요국가 의료기기 R&D투자 상위기업	46
표 3-21	화장품 주요국가 분석대상 기업 현황	49
표 3-22	화장품 기업 상위 15개국 매출액	51
표 3-23	화장품 상위 20개 기업 매출액	53
표 3-24	주요국가 화장품 매출액 상위기업	54
표 4-1	세계 제약산업 지역별 시장규모	56
표 4-2	세계 의료기기산업 지역별 시장규모	58
표 4-3	세계 화장품산업 지역별 시장규모	60

그림 차례

그림 1-1	세계 경제 성장률	2
그림 1-2	세계 교역 증가세	2
그림 3-1	세계 제약시장의 연도별 성장률	15
그림 3-2	제약기업 매출액 규모	18
그림 3-3	국가별 제약기업 매출액 비중 및 연평균성장률	19
그림 3-4	주요 국가별 제약기업의 매출액증가율 추이	21
그림 3-5	2013년 주요 제약기업 매출액	24
그림 3-6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연도별 성장률	31
그림 3-7	의료기기 기업 매출액 규모	34
그림 3-8	국가별 의료기기 기업 매출액 비중 및 연평균성장률	35
그림 3-9	주요 국가별 의료기기 기업의 매출액증가율 추이	37
그림 3-10	2013년 주요 의료기기 기업 매출액	40
그림 3-11	세계 화장품 시장의 연도별 성장률	47
그림 3-12	국가별 화장품 기업 매출액	50
그림 3-13	2013년 주요 화장품 기업 매출액	52
그림 4-1	국가별 제약기업 매출액 비중 및 연평균성장률	57
그림 4-2	국가별 의료기기 기업 매출액 비중 및 연평균성장률	59
그림 4-3	국가별 화장품 기업 매출액	61

부표차례

부표 1 제약산업 국가별 매출액 순위(2013년 기준 상위 10개사)	65
부표 2 제약산업 국가별 영업이익 순위(2013년 기준 상위 10개사)	68
부표 3 제약산업 국가별 R&D투자 순위(2013년 기준 상위 10개사)	71
부표 4 의료기기산업 국가별 매출액 순위(2013년 기준 상위 10개사)	74
부표 5 의료기기산업 국가별 영업이익 순위(2013년 기준 상위 10개사)	77
부표 6 의료기기산업 국가별 R&D투자 순위(2013년 기준 상위 10개사)	80
부표 7 화장품산업 국가별 매출액 순위(2013년 기준 상위 10개사)	83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2013년 기준 세계 제약, 의료기기 및 화장품 시장의 규모는 각각 9,906억 달러, 3,238억 달러, 2,495억 달러로 세계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고령인구 확대 및 신흥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국내 보건산업의 시장규모는 2013년 국내 GDP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각 제약 1.3%(약 170억 달러), 의료기기 0.3%(약 40억 달러), 화장품 0.5%(약 70억 달러) 수준으로 세계 시장규모와 비교할 때 아직은 작은 수준이다.

지난해 초부터 회복세를 보여 왔던 세계경제는 올해 들어 상승속도가 다소 둔화되었다. 연초 한파 등 기상이변으로 미국의 생산 차질이 컸고 중국도 경제의 하향세가 뚜렷해졌고 2분기 중 일본에서 소비세 인상의 충격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난 데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부각되면서 유로존의 회복세도 꺾인 바 있다. 다만 하반기 들어서면서 완만하지만 세계경제의 회복흐름이 다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리스크가 남아 있지만 미국과 일본의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중국도 안정적인 성장을 재개하는 모습이다.

2 2014년 보건산업 국제경쟁력 분석 - 경영성과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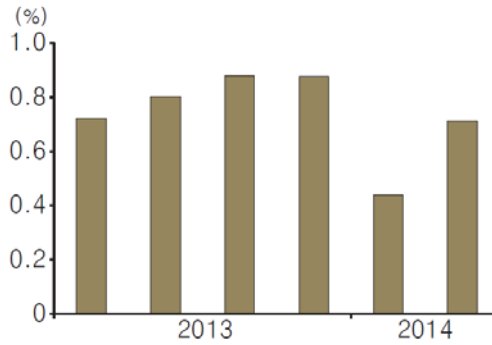


그림 1-1 세계 경제 성장률

주: 주요 40개국 가중평균 성장률, 전기비 기준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선진국 소비가 내구재 등 제조업 제품보다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데다 고용확대를 위해 자국 내 제조업 생산을 강조하면서 세계교역의 회복은 상당히 미미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대 위기 이전까지 평균 11.7% 증가했던 세계교역은 금융위기 이후 2.6% 증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와 올해에는 1% 내외 증가에 그쳐 과거처럼 교역이 세계경제를 이끌지 못하는 모습이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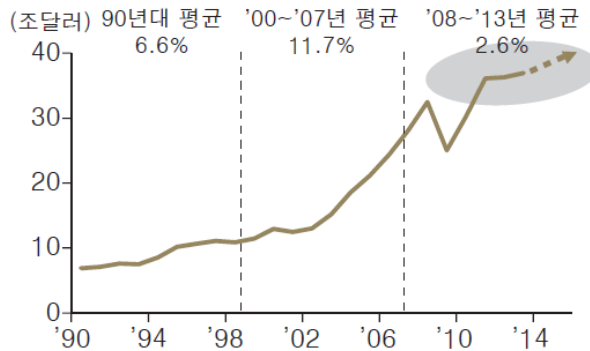


그림 1-2 세계 교역 증가세

자료: DOTS, LG경제연구소

1) LG Business Insight <2015년 국내외 경제전망> 인용

위와 같이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자 트렌드 변화로 보건산업의 경영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보건산업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는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보건산업 주요 기업들의 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 2장에서는 국내외 보건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제 3장에서는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의 주요 기업들의 경영성과 분석을, 제 4장에서는 주요결과 및 요약을 각각 살펴본다.

제2장 국내외 보건산업 동향²⁾

1. 제약 산업

1) 세계 제약산업 동향

2013년 세계 제약 시장규모는 약 9,906억 달러로 추정되며, 2012년 대비 3.3% 성장하였다. 2009년 이후 세계시장은 연평균 4.3%의 성장을 하였다.

지역별 시장 규모는 북미지역이 3,396억 달러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이후 연평균 1.2% 성장하였다. 다음으로 유럽지역이 2,203억 달러, 아시아/아프리카/호주 1,873억 달러, 일본 1,136억 달러, 중남미 748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아프리카/호주, 중남미의 시장규모가 2009년 이후 각각 연평균 15.1%, 11.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 2장의 내용은 2014년 제약산업(의료기기, 화장품)분석보고서(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등에서 발췌

표 2-1 세계 제약산업 지역별 시장규모

(단위: 억 달러, %)

지역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CAGR (’09~’13)
북미	3,238	3,351	3,462	3,490	3,396	1.2
유럽	2,639	2,532	2,551	2,243	2,203	-4.4
아시아/아프리카/호주	1,066	1,297	1,631	1,681	1,873	15.1
일본	950	1,023	1,147	1,105	1,136	4.6
중남미	479	543	629	686	748	11.8
합계	8,373	8,746	9,422	9,590	9,906	4.3

주: 2013년 세계시장규모는 2012년 실측값에 2013년 예상성장률(최소)을 적용하여 산출한 추정치임(IMS Health Data 기준)

자료: IMS Health, IMS Health Market Prognosis, June 2013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3,242억 달러로 전체 시장에서 3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중국 952억 달러, 일본 936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2013년 제약산업 시장규모는 116억 달러로 세계시장 15위에 올라 있으며 전 세계 시장의 1.2%를 차지했다.

6 2014년 보건산업 국제경쟁력 분석 - 경영성과편

표 2-2 제약산업 국가별 시장규모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1	미국	330,687	35.3	328,215	34.9	324,213	33.5
2	중국	89,994	9.6	90,035	9.6	95,150	9.8
3	일본	69,493	7.4	83,097	8.8	93,614	9.7
4	독일	41,940	4.5	42,757	4.6	43,614	4.5
5	프랑스	37,493	4.0	37,235	4.0	36,356	3.8
6	브라질	24,395	2.6	27,014	2.9	30,468	3.2
7	이탈리아	26,878	2.9	26,632	2.8	27,152	2.8
8	영국	22,572	2.4	23,142	2.5	23,533	2.4
9	캐나다	21,586	2.3	21,516	2.3	21,274	2.2
10	스페인	21,298	2.3	20,213	2.2	19,558	2.0
11	러시아	15,189	1.6	16,631	1.8	18,078	1.9
12	인도	13,338	1.4	13,644	1.5	14,821	1.5
13	멕시코	12,040	1.3	13,468	1.4	13,441	1.4
14	호주	12,269	1.3	12,941	1.4	13,243	1.4
15	한국	11,740	1.3	11,369	1.2	11,620	1.2
16	터키	8,977	1.0	8,611	0.9	8,946	0.9
17	베네수엘라	6,880	0.7	6,565	0.7	7,429	0.8
18	폴란드	4,482	0.5	6,222	0.7	6,901	0.7
19	벨기에	6,097	0.7	6,048	0.6	6,063	0.6
20	네덜란드	6,104	0.7	5,867	0.6	5,653	0.6
상위 20개국 합계		783,452	83.6	801,222	85.3	821,126	84.9
전체 합계		936,900	100.0	939,665	100.0	967,124	100.0

주: 1) 순위는 2013년 국가별 시장규모 기준으로 작성
 2) 시장규모는 미국달러 기준, 2013년 2분기 환율 기준(불변가격)
 3) 2013년 시장규모는 추정치임

자료: IMS Health, IMS Market Prognosis 2013-2017, IMS Worldreview 2013

2) 국내 제약산업 동향

2013년 제약 시장규모는 19조 292억 원으로 전년대비 0.3% 증가했다. 의약품 생산액은 16조 1,918억 원으로 전년대비 4.1%, 연평균 2.3% 증가했다. 수출은 2조 3,185억 원으로 전년대비 0.4% 증가한 반면, 수입은 5조 1,558억 원으로 전년대비 10.0% 감소했다. 의약품 수출입 시장에서 수출 성장세가 둔화 되었으나, 대폭 감소한 수입이 맞물려 2013년 무역수지는 2012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2-3 제약산업 국내 시장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CAGR ('09~'13)
생산	14,788,387	15,569,588	15,440,251	15,560,663	16,191,845	2.3
수출	1,772,242	1,770,059	1,943,493	2,309,534	2,318,522	6.9
수입	4,953,881	5,108,911	5,447,053	5,728,874	5,155,829	1.0
무역수지	-3,181,639	-3,338,851	-3,503,560	-3,419,340	-2,837,308	-
시장규모	17,970,026	18,908,439	18,943,812	18,980,003	19,029,152	1.4

주: 1) 시장규모는 생산 - 수출 + 수입

2) 무역수지는 수출 - 수입

3) 수출입액은 한국은행 원/달러 연평균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4) 제약산업의 범위는 완제, 마약, 한외마약, 항정정신성, 원료의약품

자료: 1) 한국제약협회, 의약품 등 생산실적 보고, 각 연도

2) 한국제약수출입협회, Facts & Survey Report, 각 연도

2. 의료기기 산업

1) 세계 의료기기산업 동향

2013년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약 3,238억 달러로 추정(BMI Espicom, 2014)되며, 2012년 대비 3.9% 성장하였다. 2009년 이후 세계시장은 2010년에 11.0% 증가하였다가,

8 2014년 보건산업 국제경쟁력 분석 - 경영성과편

2011년 10.1% 증가, 2012년에 2.4%증가했다가, 이후 다시 성장률이 점차 호전되는 추세이며, 연평균 6.8%의 성장을 하였다.

지역별 시장 규모는 2013년 북미/남미 지역이 1,457억 달러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이후 연평균 6.8% 성장하였다. 서유럽이 848억 달러로 연평균 3.6% 성장했으며 아시아/태평양은 677억 달러 규모에 연평균 11.8%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표 2-4 세계 의료기기산업 지역별 시장규모

(단위: 억 달러, %)

지역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CAGR ('09~'13)
북미/남미	1,119	1,263	1,372	1,394	1,457	6.8
아시아/태평양	433	523	601	670	677	11.8
서유럽	737	761	823	792	848	3.6
중앙 및 동유럽	146	156	179	188	176	4.8
중동/아프리카	54	60	68	74	80	10.3
합계	2,489	2,763	3,043	3,117	3,238	6.8

자료 : BMI Espicom(2014)

2013년 미국의 시장규모는 1,254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38.7%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20개 국가가 전체의 88.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본이 302억 달러(9.3%), 독일 256억 달러(7.9%), 중국 161억 달러(5.0%), 프랑스 144억 달러(4.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2013년 시장규모는 세계 11위(51억 달러)로 세계의료기기 시장에서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의료기기산업 국가별 시장규모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1	미국	118,269	38.9	119,588	38.4	125,384	38.7
2	일본	29,228	9.6	32,501	10.4	30,160	9.3
3	독일	24,105	7.9	23,553	7.6	25,568	7.9
4	중국	11,850	3.9	14,058	4.5	16,119	5.0
5	프랑스	13,981	4.6	13,542	4.3	14,434	4.5
6	영국	9,657	3.2	9,830	3.2	10,249	3.2
7	이탈리아	9,791	3.2	8,460	2.7	9,187	2.8
8	캐나다	6,337	2.1	6,878	2.2	6,846	2.1
9	러시아	6,813	2.2	8,426	2.7	6,716	2.1
10	브라질	5,206	1.7	5,444	1.7	5,648	1.7
11	한국	4,747	1.6	4,880	1.6	5,109	1.6
12	스페인	5,122	1.7	4,600	1.5	4,919	1.5
13	호주	4,557	1.5	4,842	1.6	4,904	1.5
14	네덜란드	3,595	1.2	3,498	1.1	3,778	1.2
15	멕시코	3,166	1.0	3,328	1.1	3,673	1.1
16	스위스	3,354	1.1	3,273	1.1	3,554	1.1
17	인도	2,830	0.9	3,179	1.0	3,226	1.0
18	스웨덴	2,431	0.8	2,332	0.7	2,541	0.8
19	벨기에	2,372	0.8	2,274	0.7	2,478	0.8
20	오스트리아	2,399	0.8	2,267	0.7	2,422	0.7
상위 20개국 합계		269,808	88.7	276,752	88.8	286,916	88.6
전체 합계		304,285	100.0	311,712	100.0	323,755	100.0

주 : 1) BMI Espicom(2014)의 “Worldwide Medical Market Forecasts to 2019”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식약처의 생산수출입 실적 기준의 시장규모와 차이가 날 수 있음

2) 순위는 2013년 기준임

자료 : BMI Espicom, Worldwide Medical Market Forecasts to 2019, 2014.10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R&D, 혁신, 제조, 판매 및 유통 지사 등을 구축해 왔으며, 중국 의료개혁 이후 이러한 활동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중이다. 주요 특징은 첫째, 연구개발센터 또는 혁신센터를 설립하여 중국 및 아시아시장을 거점화하고 있다. 둘째, 적극적인 현지 기업 인수를 통해 연구개발, 제조, 유통 등에 대한 중국 시장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제조설비 및 사업본부의 중국 이전 또는 설립을 통한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넷째, 중국 정부 또는 관련협회와 전략적 제휴 및 사회적 공헌활동을 연계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 국내 의료기기산업 동향

생산액 및 수출입을 기준(식약처 실적보고)으로 한 우리나라 2013년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4조 6,315억 원 규모로 2012년 대비 0.8% 증가하였다.

국내 시장규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6.2%의 성장세를 지속해왔다. 2013년 우리나라 의료기기 생산액은 4조 2,242억 원으로 2012년 대비 8.9% 증가하였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도 11.2%로 생산규모가 계속 성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수출액의 경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14.2%의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 2조 5,809억 원 수출로 2012년 대비 16.5% 확대되었다. 2013년 의료기기 수입액은 2012년 대비 4.9%의 증가한 2조 9,882억 원으로, 2009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5.6%로 나타났다. 2013년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4,074억 원으로 전년대비 43.0% 감소하였다. 2013년 수입의존도는 64.5%로 전년대비 0.7%p 상승하였다. 수입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수출액 급증으로 시장규모는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하여 수입 의존도가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의료기기산업 국내 시장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CAGR ('09~'13)
생산	2,764,261	2,964,445	3,366,462	3,877,374	4,224,169	11.2
수출	1,519,027	1,681,619	1,853,785	2,216,074	2,580,862	14.2
수입	2,398,814	2,619,895	2,793,709	2,931,014	2,988,241	5.6
무역수지	-879,787	-938,276	-939,925	-714,940	-407,379	-
시장규모	3,644,047	3,902,720	4,306,387	4,592,314	4,631,548	6.2

주: 1) 시장규모는 생산 - 수출 + 수입

2) 무역수지는 수출 - 수입

3) 수출입액은 한국은행 원/달러 연평균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실적 보고 자료, 각 연도

3. 화장품 산업

1) 세계 화장품산업 동향

2013년 세계 화장품 시장규모는 2,495억 달러로 전년대비 3.9% 증가했다. 지역별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2.5% 증가한 유럽이 936억 달러로 가장 크며, 이어서 아시아/태평양 786억 달러, 북미/중남미 708억 달러 순이다. 한편 중동 및 아프리카는 66억 달러로 세계시장에서 2.6%를 차지했으나, 연평균 6.4% 증가로 미루어 볼 때 향후 전망은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2-7 세계 화장품산업 지역별 시장규모

(단위: 억 달러, %)

지역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CAGR ('09~'13)
유럽	848	869	890	913	936	2.5
아시아/태평양	642	676	710	747	786	5.2
북미/중남미	597	621	652	679	708	4.4
중동/아프리카	51	55	58	62	66	6.4
합계	2,138	2,220	2,310	2,401	2,495	3.9

주 : 1) Datamonitor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화장품 유형 위주로 자료를 분석함

2) CAGR은 연평균 증가율(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 의미함

자료 : Datamonitor Personal Care Market Data, 2014(Oct)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379억 달러로 전체 시장에서 15.2%를 차지했고 그다음은 중국 243억 달러, 일본 233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2013년 화장품산업 시장규모는 71억 달러로 세계시장 10위에 올라 있으며 전 세계 시장의 2.8%를 차지했다.

표 2-8 화장품산업 국가별 시장규모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YoY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1	미국	36,346	15.7	37,108	15.5	37,871	15.2	2.1
2	중국	20,346	8.8	22,219	9.3	24,289	9.7	9.3
3	일본	22,691	9.8	23,033	9.6	23,277	9.3	1.1
4	독일	14,609	6.3	14,820	6.2	15,136	6.1	2.1
5	브라질	12,805	5.5	13,739	5.7	14,748	5.9	7.4
6	프랑스	13,507	5.8	13,754	5.7	13,982	5.6	1.7
7	영국	10,844	4.7	11,249	4.7	11,632	4.7	3.4
8	이탈리아	9,916	4.3	10,089	4.2	10,207	4.1	1.2
9	러시아	6,912	3.0	7,255	3.0	7,669	3.1	5.7
10	한국	6,631	2.9	6,831	2.8	7,102	2.8	4.0
11	스페인	6,720	2.9	6,735	2.8	6,777	2.7	0.6
12	멕시코	5,592	2.4	5,880	2.4	6,154	2.5	4.7
13	인도	4,640	2.0	5,213	2.2	5,846	2.3	12.1
14	캐나다	5,324	2.3	5,476	2.3	5,622	2.3	2.7
15	호주	3,876	1.7	3,996	1.7	4,105	1.6	2.7
합계(47개국)		231,039	100.0	240,077	100.0	249,541	100.0	3.9

자료 : Datamonitor Personal Care Market Data, 2014(Oct)

2) 국내 화장품산업 동향

2013년 화장품 시장규모는 7조 6,242억 원으로 전년대비 8.6% 증가했다. 화장품 생산액은 7조 9,721억 원으로 전년대비 11.9%, 연평균 11.4% 증가했다. 수출은 1조 4,122억 원으로 전년대비 17.5% 증가한 반면, 수입은 1조 643억 원으로 전년대비 3.4% 감소했다. 화장품 수출입 시장에서 뚜렷한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었으며, 소폭 감소한 수입이 맞물려 2013년 무역수지는 2012년 흑자전환 이후 3배 이상 증가했다.

표 2-9 화장품산업 국내 시장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CAGR (‘09~’13)
생산	5,168,589	6,014,551	6,385,617	7,122,666	7,972,072	11.4
수출	530,985	690,211	891,478	1,202,383	1,412,229	27.7
수입	896,587	984,076	1,095,658	1,101,795	1,064,338	4.4
무역수지	-365,602	-293,865	-204,180	100,588	347,891	-
시장규모	5,534,191	6,308,416	6,589,797	7,022,077	7,624,181	8.3

주 : 1) 시장규모는 생산-수출+수입

2) 수출입에 대한 환율 적용은 한국은행의 연도별 연평균 기준 환율을 사용함

자료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생산실적 자료, 각 연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Facts & Survey Report, 각 연도

제3장 보건산업 경영성과 분석

1. 제약 산업

1) 산업동향

글로벌 제약산업 시장규모는 약 9,906억 달러로 추정되며, 2012년 대비 3.3% 성장하였다. 2009년 이후 세계시장은 연평균 4.3%의 성장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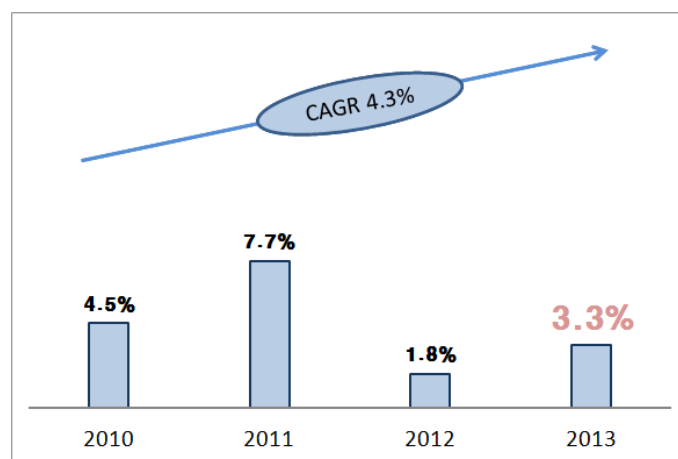


그림 3-1 세계 제약시장의 연도별 성장률

자료: IMS Health, IMS Health Market Prognosis, June 2013

지역별 시장 규모는 북미지역이 3,396억 달러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이후 연평균 1.2% 성장하였다. 다음으로 유럽지역이 2,203억 달러, 아시아/아프리카/호주 1,873억 달러, 일본 1,136억 달러, 중남미 748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아프리카/호주, 중남미의 시장규모가 2009년 이후 각각 연평균 15.1%, 11.8% 성장하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제약시장이 성장한 것은 상당부분 아시아/아프리카/호주 및 중남미 지역의 시장 확대에 기인한다.

이러한 세계 제약시장의 급격한 확대는 최근의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세계적인 인구고령화 추세에 따라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치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경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전 세계 질병의 70%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소득증대 및 생활패턴의 변화 등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한 의료분야의 지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2) 분석대상 및 자료

분석대상은 Thomson Reuters Eikon에서 제공하는 Pharmaceuticals 상장기업 중 상위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자료는 Thomson Reuters Eikon 2009년~2013년도 기업별 재무정보에서 수집하여 매출액(Revenue), 영업이익(Operating Income), 연구개발비(R&D Expenses)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3-1 제약산업 주요국가 분석대상 기업 현황

국 가	기 업 명
한국 (64개)	Yuhan Corp, Green Cross Holdings, Daewoong Co Ltd, Hanmi Pharm Co Ltd, Daewoong Pharma, Dong-A Socio Holdings Co Ltd, Chongkundang Holdings Corp, JW Holdings Corp, Dong-A ST Co Ltd, Kwangdong Pharmaceutical Co Ltd, etc.
미국 (50개)	Johnson&Johnson, Pfizer Inc, Merck & Co Inc, Eli Lilly and Co, AbbVie Inc, Bristol-Myers Squibb Co, Actavis PLC, Mylan NV, Allergan Inc, Zoetis Inc, etc.
스위스 (4개)	Novartis AG, Roche Holding AG, Galenica AG, Cosmo Pharmaceuticals SpA
일본 (38개)	Takeda Pharmaceutical Co Ltd, Otsuka Holdings Co Ltd, Daiichi Sankyo Co Ltd, Astellas Pharma Inc, Eisai Co Ltd, Mitsubishi Tanabe Pharma Corp, Chugai Pharmaceutical Co Ltd, Sumitomo Dainippon Pharma Co Ltd, Kyowa Hakko Kirin Co Ltd, Taisho Pharmaceutical Holdings Co Ltd
영국 (19개)	GlaxoSmithKline PLC, AstraZeneca PLC, Shire PLC, Hikma Pharmaceuticals PLC, Indivior PLC, BTG PLC, Dechra Pharmaceuticals PLC, EastPharma Ltd, Cathay International Holdings Ltd, SkyePharma PLC, etc.
중국 (126개)	Harbin Pharmaceutical Group Co Ltd, Guangzhou Baiyunshan Pharmaceutical Holdings Co Ltd, Yunnan Baiyao Group Co Ltd, Kangmei Pharmaceutical Co Ltd, North China Pharmaceutical Co Ltd, Zhejiang Int'l Group Co Ltd, Tasly Pharmaceutical Group Co Ltd, Shanghai Fosun Pharmaceutical Group Co Ltd, Beijing Tongrentang Co Ltd, Zhejiang Hisun Pharmaceutical Co Ltd, etc.
기타 (199개)	Bayer AG, Sanofi SA, Teva Pharmaceutical Industries Ltd, Novo Nordisk A/S, Merck KGaA, Valeant Pharmaceuticals International Inc, UCB SA, H Lundbeck A/S, Stada Arzneimittel AG, Dr.Reddy's Laboratories Ltd, etc.

3) 분석결과

2013년 세계 제약기업 매출액은 약 8,515억 달러로 2012년 대비 1.1% 증가하였다. 2009년 이후 세계 제약기업 매출액은 연평균 5.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2010년 이후 증가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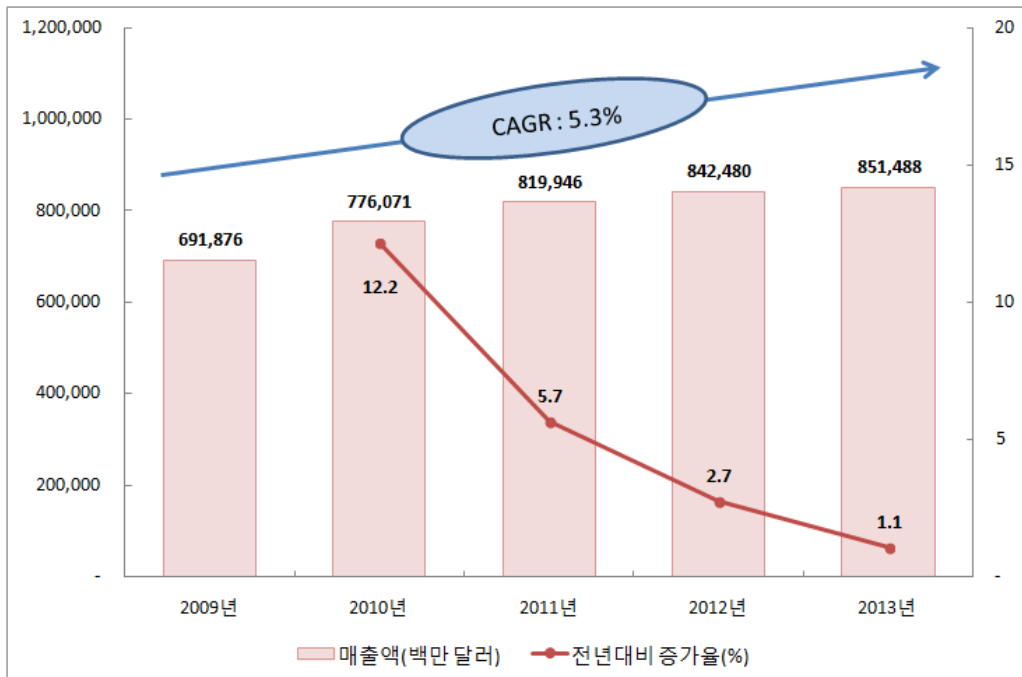


그림 3-2 제약기업 매출액 규모

2013년 미국 제약기업의 매출액은 약 2,731억 달러로 세계 제약기업 매출액의 3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20개 국가가 전체의 9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가 1,090억 달러(12.8%), 일본 954억 달러(11.2%), 영국 787억 달러(9.2%)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제약기업 매출액은 세계 11위(134억 달러)로 전체 매출액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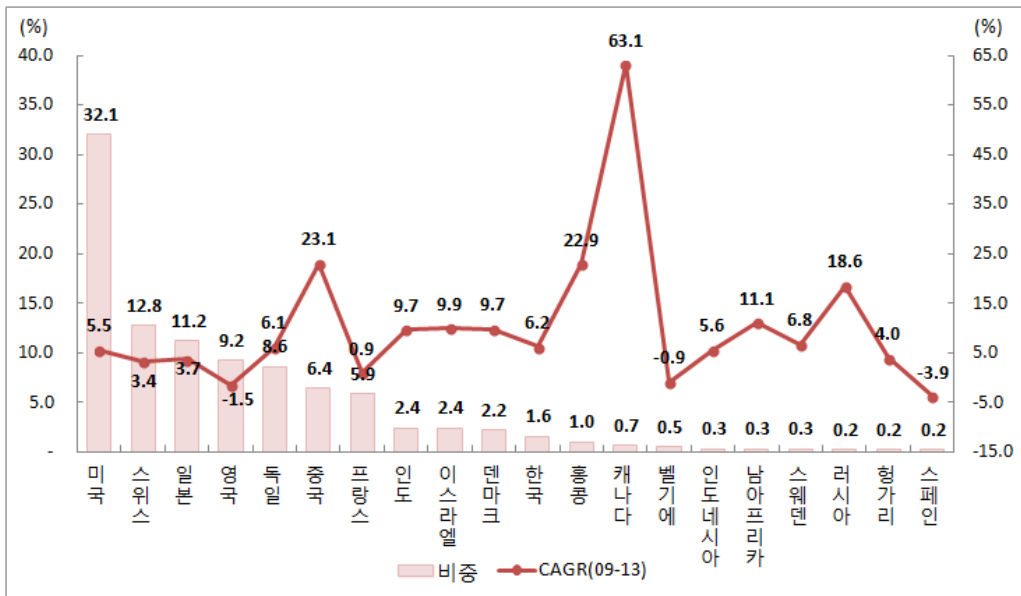


그림 3-3 국가별 제약기업 매출액 비중 및 연평균성장률

주 : 캐나다, 이스라엘, 러시아, 남아공 등은 기업수가 2개이며, 스웨덴, 스페인 등은 기업수가 3개이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

표 3-2 제약기업 상위 20개국 매출액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중	YoY	CAGR ('09-'13)
1	미국	220,762	264,264	274,875	269,991	273,140	32.1	1.2	5.5
2	스위스	95,322	105,784	108,179	110,936	108,953	12.8	-1.8	3.4
3	일본	82,538	92,368	103,528	105,238	95,419	11.2	-9.3	3.7
4	영국	83,744	83,344	84,329	79,317	78,707	9.2	-0.8	-1.5
5	독일	58,046	61,702	62,997	69,872	73,526	8.6	5.2	6.1
6	중국	23,762	29,932	38,175	45,995	54,552	6.4	18.6	23.1
7	프랑스	48,364	49,225	49,102	51,501	50,155	5.9	-2.6	0.9
8	인도	14,202	18,551	20,632	21,492	20,534	2.4	-4.5	9.7
9	이스라엘	13,968	16,196	18,379	20,389	20,392	2.4	0.0	9.9
10	덴마크	12,847	13,949	14,749	16,841	18,627	2.2	10.6	9.7
11	한국	10,516	9,866	10,672	11,864	13,387	1.6	12.8	6.2
12	홍콩	3,782	4,856	5,207	6,554	8,624	1.0	31.6	22.9
13	캐나다	820	1,181	2,427	3,480	5,810	0.7	66.9	63.1
14	벨기에	4,461	4,305	4,202	4,568	4,306	0.5	-5.7	-0.9
15	인도네시아	2,037	2,367	2,560	2,822	2,536	0.3	-10.1	5.6
16	남아프리카	1,631	1,849	2,390	2,423	2,483	0.3	2.4	11.1
17	스웨덴	1,873	2,077	2,206	2,368	2,434	0.3	2.8	6.8
18	러시아	940	1,148	1,522	1,842	1,860	0.2	1.0	18.6
19	헝가리	1,441	1,330	1,267	1,486	1,684	0.2	13.3	4.0
20	스페인	1,968	1,835	1,623	1,686	1,682	0.2	-0.3	-3.9
상위20개국 합계		683,023	766,130	809,022	830,668	838,811	98.5	1.0	5.3
합계		691,876	776,071	819,946	842,480	851,488	100.0	1.1	5.3

2013년도 미국의 제약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1.2%로 연평균 5.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스위스는 2012년 대비 1.8% 감소하였으며, 일본 또한 9.3%의 매출액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제약기업 매출액증가율은 12.8%로 최근 5년간 연평균 6.2%의 성장세를 유지하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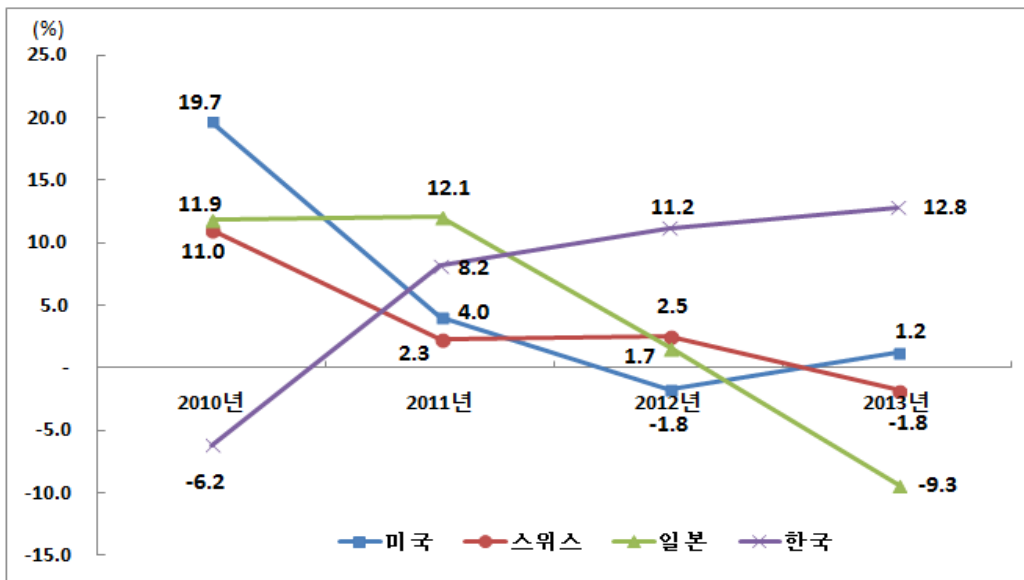


그림 3-4 주요 국가별 제약기업의 매출액증가율 추이

2013년도 제약산업 매출액 상위 20개국의 전체 영업이익은 1,571억 달러로 전년보다 1.5%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18.5%로 전년보다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제약기업 영업이익은 561억 달러로 2012년 대비 7.1%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률은 20.5%로 전년 19.4% 보다 1.1%p 상승하였다. 다음으로 스위스 298억 달러, 영국 187억 달러, 일본 107억 달러의 영업이익으로 전년대비 각각 10.2%, -15.9%, -21.0%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률은 27.3%, 23.7%, 11.2%로 전년대비 각각 2.9%p, -4.3%p, -1.7%p 증가 추이를 보였다. 한국은 10억 달러의 영업이익으로 전년대비 15.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률은 7.8%로 전년대비 0.2%p 증가하였다.

표 3-3 제약산업 주요 국가별 영업이익,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YoY
	영업 이익	이익률	영업 이익	이익률	영업 이익	이익률	영업 이익	이익률	영업 이익	이익률	
미국	47,868	21.7	50,723	19.2	53,581	19.5	52,389	19.4	56,100	20.5	7.1
스위스	22,100	23.2	26,325	24.9	25,708	23.8	27,014	24.4	29,756	27.3	10.2
일본	8,414	10.2	14,638	15.8	15,237	14.7	13,589	12.9	10,729	11.2	-21.0
영국	25,897	30.9	18,372	22.0	27,852	33.0	22,215	28.0	18,685	23.7	-15.9
독일	5,473	9.4	5,371	8.7	7,007	11.1	6,739	9.6	9,356	12.7	38.8
중국	3,764	15.8	4,309	14.4	5,170	13.5	5,570	12.1	6,580	12.1	18.1
프랑스	9,760	20.2	9,224	18.7	7,819	15.9	8,998	17.5	7,759	15.5	-13.8
인도	1,920	13.5	2,765	14.9	6,306	30.6	3,399	15.8	3,750	18.3	10.3
이스라엘	2,407	17.2	3,873	23.9	3,112	16.9	2,209	10.8	1,654	8.1	-25.1
덴마크	3,457	26.9	4,029	28.9	4,539	30.8	5,542	32.9	6,119	32.8	10.4
한국	1,059	10.1	1,206	12.2	1,060	9.9	906	7.6	1,044	7.8	15.2
홍콩	799	21.1	1,096	22.6	1,027	19.7	1,553	23.7	1,740	20.2	12.1
캐나다	181	22.1	-142	-12.1	263	10.8	59	1.7	-461	-7.9	-875.7
벨기에	1,198	26.9	273	6.3	450	10.7	534	11.7	357	8.3	-33.1
인도네시아	262	12.9	316	13.3	372	14.5	381	13.5	326	12.9	-14.3
남아프리카	422	25.9	459	24.8	600	25.1	588	24.2	594	23.9	1.1
스웨덴	391	20.9	373	18.0	342	15.5	295	12.4	248	10.2	-15.8
러시아	328	34.9	340	29.7	401	26.4	459	24.9	514	27.6	12.1
헝가리	277	19.3	305	22.9	233	18.4	215	14.4	222	13.2	3.2
스페인	304	15.5	269	14.7	144	8.9	128	7.6	-46	-2.7	-135.5
합계	137,776	19.9	145,910	18.8	163,167	19.9	154,776	18.4	157,126	18.5	1.5

2013년도 제약산업 매출액 상위 20개국의 전체 R&D 투자는 1,059억 달러로 전체 매출액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0.3%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약기업 R&D 투자액은 382억 달러로 매출액의 14.0%를 차지하며 전년 보다 0.7%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스위스 188억 달러, 일본 156억 달러, 영국 111억

달러를 R&D에 투자하였고, 스위스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반면 일본, 영국은 각각 9.9%, 7.4% 감소하였다. 한국은 7억 달러를 R&D에 투자하였고 이는 전년 보다 17.3% 증가한 수치이다.

표 3-4 제약산업 주요 국가별 R&D투자,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YoY
	R&D	투자 비율	R&D	투자 비율	R&D	투자 비율	R&D	투자 비율	R&D	투자 비율	
미국	32,858	14.9	38,504	14.6	38,015	13.8	37,899	14.0	38,178	14.0	0.7
스위스	17,011	17.8	19,819	18.7	18,200	16.8	18,604	16.8	18,840	17.3	1.3
일본	15,369	18.6	15,820	17.1	17,781	17.2	17,314	16.5	15,594	16.3	-9.9
영국	11,542	13.8	10,916	13.1	12,733	15.1	12,033	15.2	11,144	14.2	-7.4
독일	5,923	10.2	6,019	9.8	5,821	9.2	6,034	8.6	6,822	9.3	13.1
중국	-	-	-	-	139	0.4	922	2.0	1,101	2.0	19.4
프랑스	6,957	14.4	6,419	13.0	6,570	13.4	6,845	13.3	6,877	13.7	0.5
인도	320	2.3	342	1.8	208	1.0	246	1.1	322	1.6	30.9
이스라엘	802	5.7	933	5.8	1,080	5.9	1,283	6.3	1,427	7.0	11.2
덴마크	1,475	11.5	1,537	11.0	1,528	10.4	2,451	14.6	2,647	14.2	8.0
한국	412	3.9	441	4.5	551	5.2	597	5.0	701	5.2	17.3
홍콩	31	0.8	41	0.8	54	1.0	54	0.8	81	0.9	50.0
캐나다	48	5.8	68	5.8	66	2.7	79	2.3	157	2.7	98.2
벨기에	965	21.6	943	21.9	1,007	24.0	1,136	24.9	1,218	28.3	7.2
인도네시아	8	0.4	11	0.4	10	0.4	11	0.4	45	1.8	331.7
남아프리카	9	0.5	9	0.5	9	0.4	10	0.4	10	0.4	6.6
스웨덴	145	7.7	107	5.2	108	4.9	121	5.1	148	6.1	22.3
러시아	-	-	-	-	-	-	1	0.1	5	0.3	329.4
헝가리	125	8.7	131	9.8	118	9.3	176	11.9	189	11.2	7.1
스페인	2	0.1	2	0.1	2	0.1	2	0.1	2	0.1	4.1
합계	94,326	13.6	102,362	13.2	104,311	12.7	106,188	12.6	105,890	12.4	-0.3

2013년도 제약산업 상위 20개 기업의 매출액은 6,110억 달러로 전체 매출액의 71.8%에 해당한다. 미국의 Johnson&Johnson(713억 달러), Pfizer(516억 달러), 독일의 Bayer(552억 달러), 스위스의 Novartis(527억 달러), Roche(524억 달러)가 상위 5개 기업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권 기업으로는 일본의 Takeda(165억 달러), Otsuka(129억 달러) 등이 매출액 상위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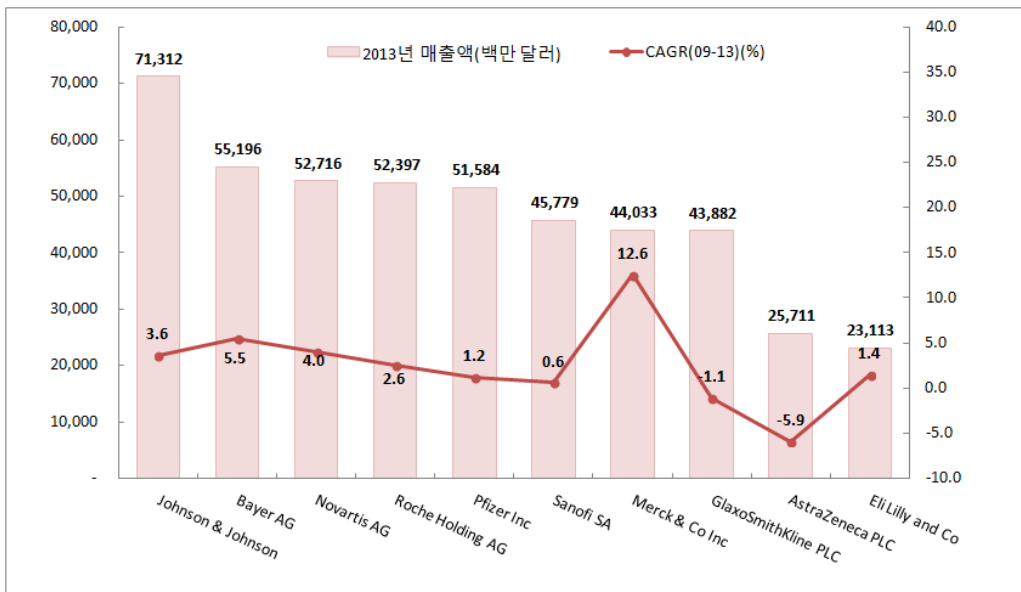


그림 3-5 2013년 주요 제약기업 매출액

표 3-5 제약산업 상위 20개 기업 매출액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기업	국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중	YoY	CAGR (09-13)
1	Johnson&Johnson	미국	61,897	61,587	65,030	67,224	71,312	8.4	6.1	3.6
2	Bayer	독일	44,620	46,937	47,285	52,434	55,196	6.5	5.3	5.5
3	Novartis	스위스	45,103	51,561	59,375	57,561	52,716	6.2	-8.4	4.0
4	Roche	스위스	47,369	50,855	45,362	49,699	52,397	6.2	5.4	2.6
5	Pfizer	미국	49,269	65,165	61,035	54,657	51,584	6.1	-5.6	1.2
6	Sanofi	프랑스	44,712	45,530	45,383	47,442	45,779	5.4	-3.5	0.6
7	Merck&Colnc	미국	27,428	45,987	48,047	47,267	44,033	5.2	-6.8	12.6
8	Glaxo Smith Kline	영국	45,826	44,288	42,546	42,953	43,882	5.2	2.2	-1.1
9	Astra Zeneca	영국	32,804	33,269	33,591	27,973	25,711	3.0	-8.1	-5.9
10	Eli Lilly	미국	21,836	23,076	24,287	22,603	23,113	2.7	2.3	1.4
11	Teva	이스라엘	13,899	16,121	18,312	20,317	20,314	2.4	-0.0	10.0
12	Abb Vielnc	미국	14,214	15,638	17,444	18,380	18,790	2.2	2.2	7.2
13	Takeda	일본	15,564	15,685	17,070	18,226	16,530	1.9	-9.3	1.5
14	Bristol-Myers Squibb	미국	18,808	19,484	21,244	17,621	16,385	1.9	-7.0	-3.4
15	Novo Nordisk	덴마크	9,829	10,911	11,552	13,807	15,402	1.8	11.5	11.9
16	Merck KGaA	독일	11,091	12,428	13,303	14,742	15,250	1.8	3.5	8.3
17	Otsuka	일본	9,672	11,602	13,561	13,946	12,932	1.5	-7.3	7.5
18	Daiichi Sankyo	일본	8,520	10,187	11,634	11,338	10,560	1.2	-6.9	5.5
19	Astellas	일본	9,770	10,431	11,473	11,709	10,425	1.2	-11.0	1.6
20	Actavis	미국	2,793	3,567	4,584	5,915	8,678	1.0	46.7	32.8
상위20개사 합계			535,024	594,310	612,117	615,813	610,988	71.8	-0.8	3.4
합계			691,876	776,071	819,946	842,480	851,488	100.0	1.1	5.3

2013년도 주요국가 제약산업 매출액 상위기업을 보면 한국은 Yuhan(9억 달러), Green Cross(9억 달러), Daewoong(8억 달러) 등이 상위기업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 Johnson&Johnson(713억 달러), 영국 Glaxo Smith Kline(439억 달러), 일본 Takeda(165억 달러), 스위스 Novartis(527억 달러), 중국 Harbin(30억 달러) 등이 각 국가의 매출액 1위 기업으로 나타났다.

표 3-6 주요국가 제약기업 매출액 상위기업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기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YoY	CAGR ('09-'13)
한국	Yuhan	556	592	586	730	899	23.1	12.8
	Green Cross	1,310	752	706	806	894	11.0	-9.1
	Daewoong	506	180	254	774	804	3.9	12.2
미국	Johnson&Johnson	61,897	61,587	65,030	67,224	71,312	6.1	3.6
	Pfizer	49,269	65,165	61,035	54,657	51,584	-5.6	1.2
	Merck&Colnc	27,428	45,987	48,047	47,267	44,033	-6.8	12.6
영국	Glaxo Smith Kline	45,826	44,288	42,546	42,953	43,882	2.2	-1.1
	Astra Zeneca	32,804	33,269	33,591	27,973	25,711	-8.1	-5.9
	Shire	3,008	3,471	4,263	4,527	4,934	9.0	13.2
일본	Takeda	15,564	15,685	17,070	18,226	16,530	-9.3	1.5
	Otsuka	9,672	11,602	13,561	13,946	12,932	-7.3	7.5
	Daiichi Sankyo	8,520	10,187	11,634	11,338	10,560	-6.9	5.5
스위스	Novartis	45,103	51,561	59,375	57,561	52,716	-8.4	4.0
	Roche	47,369	50,855	45,362	49,699	52,397	5.4	2.6
	Galenica	2,811	3,325	3,400	3,598	3,763	4.6	7.6
중국	Harbin	1,564	1,902	2,774	2,835	2,989	5.4	17.6
	Guangzhou Baiyunshan	569	681	864	1,936	2,909	50.2	50.4
	Yunnan Baiyao	1,051	1,529	1,797	2,217	2,612	17.8	25.6

매출액 상위 20개 제약기업의 전체 영업이익을 보면 1,571억 달러로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률은 18.5%이며, 전년 보다 1.5%p 증가하였다. Johnson&Johnson이 전년 보다 12.3% 증가한 155억 달러로 매출액 대비 21.7%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으며, Bayer 68억 달러, Novartis 110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다.

표 3-7 주요 제약기업 영업이익,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단위: 백만 달러, %)

기업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YoY
		영업 이익	이익률	영업 이익	이익률	영업 이익	이익률	
Johnson&Johnson	미국	12,361	19.0	13,775	20.5	15,471	21.7	12.3
Bayer	독일	5,371	11.4	5,175	9.9	6,779	12.3	31.0
Novartis	스위스	10,998	18.5	11,193	19.4	10,969	20.8	-2.0
Roche	스위스	14,349	31.6	15,401	31.0	18,332	35.0	19.0
Pfizer	미국	12,666	20.8	12,138	22.2	16,156	31.3	33.1
Sanofi	프랑스	7,419	16.3	8,486	17.9	7,017	15.3	-17.3
Merck&Colnc	미국	7,670	16.0	9,213	19.5	5,956	13.5	-35.4
Glaxo Smith Kline	영국	12,924	30.4	11,863	27.6	12,102	27.6	2.0
Astra Zeneca	영국	12,795	38.1	8,148	29.1	3,712	14.4	-54.4
Eli Lilly	미국	5,529	22.8	4,734	20.9	5,370	23.2	13.4
Teva	이스라엘	3,109	17.0	2,205	10.9	1,649	8.1	-25.2
Abb VieInc	미국	3,621	20.8	5,817	31.6	5,664	30.1	-2.6
Takeda	일본	4,361	25.5	2,770	15.2	690	4.2	-75.1
Bristol-Myers Squibb	미국	6,717	31.6	2,180	12.4	2,818	17.2	29.3
Novo Nordisk	덴마크	3,896	33.7	5,216	37.8	5,804	37.7	11.3
Merck KGaA	독일	1,466	11.0	1,271	8.6	2,214	14.5	74.1
Otsuka	일본	1,482	10.9	1,706	12.2	1,746	13.5	2.4
Daiichi Sankyo	일본	1,347	11.6	376	3.3	1,048	9.9	178.9
Astellas	일본	1,291	11.2	1,404	12.0	1,279	12.3	-8.9
Actavis	미국	523	11.4	316	5.3	-435	-5.0	-237.8
합계		163,167	19.9	154,776	18.4	157,126	18.5	1.5

2013년 주요국가의 영업이익 상위 국가를 보면 한국은 Celltrion(0.9억 달러), Green Cross(0.9억 달러), Daewoong(0.9억 달러) 순으로 영업이익이 높게 나타났다. 미국의 Pfizer(162억 달러), 영국 Glaxo Smith Kline(121억 달러), 일본 Otsuka(17억 달러), 스위스 Roche(183억 달러), 중국 Shanghai Fosun(5억 달러)가 각 국가의 영업 이익 1위로 나타났다.

표 3-8 주요국가 제약기업 영업이익 상위기업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기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YoY
한국	Celltrion	62	94	154	183	93	-49.3
	Green Cross	113	152	91	46	90	95.5
	Daewoong	22	19	44	62	87	40.0
미국	Pfizer	11,940	11,025	12,666	12,138	16,156	33.1
	Johnson&Johnson	15,755	16,947	12,361	13,775	15,471	12.3
	Merck&Colnc	2,387	2,370	7,670	9,213	5,956	-35.4
영국	Glaxo Smith Kline	13,605	5,901	12,924	11,863	12,102	2.0
	Astra Zeneca	11,543	11,494	12,795	8,148	3,712	-54.4
	Shire	625	789	1,109	1,045	1,734	65.9
일본	Otsuka	886	1,004	1,482	1,706	1,746	2.4
	Astellas	2,457	1,945	1,291	1,404	1,279	-8.9
	Daiichi Sankyo	-2,990	1,099	1,347	376	1,048	178.9
스위스	Roche	11,856	14,447	14,349	15,401	18,332	19.0
	Novartis	9,982	11,526	10,998	11,193	10,969	-2.0
	Galenica	256	346	349	384	437	13.8
중국	Shanghai Fosun	471	173	251	327	466	42.5
	Yunnan Baiyao	101	158	218	288	436	51.3
	Kangmei	84	120	182	272	360	32.2

매출액 상위 20개 제약기업의 전체 R&D투자를 보면 1,059억 달러로 매출액 대비 투자 비율은 12.4%이며, 전년 보다 0.3% 감소하였다. Johnson&Johnson이 전년보다 6.8% 증가한 82억 달러로 매출액 대비 11.5%를 R&D에 투자 하였으며, Bayer 47억 달러, Novartis 91억 달러를 R&D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주요 제약기업 R&D투자,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단위: 백만 달러, %)

기업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YoY
		R&D	투자 비율	R&D	투자 비율	R&D	투자 비율	
Johnson&Johnson	미국	7,548	11.6	7,666	11.4	8,187	11.5	6.8
Bayer	독일	3,795	8.0	3,975	7.6	4,682	8.5	17.8
Novartis	스위스	9,583	16.1	9,332	16.2	9,071	17.2	-2.8
Roche	스위스	8,610	19.0	9,257	18.6	9,745	18.6	5.3
Pfizer	미국	8,026	13.1	6,961	12.7	6,551	12.7	-5.9
Sanofi	프랑스	6,228	13.7	6,472	13.6	6,556	14.3	1.3
Merck & Colnc	미국	7,742	16.1	7,911	16.7	7,123	16.2	-10.0
Glaxo Smith Kline	영국	6,245	14.7	5,663	13.2	5,629	12.8	-0.6
Astra Zeneca	영국	5,523	16.4	5,243	18.7	4,269	16.6	-18.6
Eli Lilly	미국	5,021	20.7	5,278	23.4	5,531	23.9	4.8
Teva	이스라엘	1,080	5.9	1,283	6.3	1,427	7.0	11.2
Abb VieInc	미국	2,503	14.3	2,596	14.1	2,855	15.2	10.0
Takeda	일본	3,474	20.4	3,405	18.7	3,411	20.6	0.2
Bristol-Myers Squibb	미국	3,811	17.9	3,762	21.3	3,731	22.8	-0.8
Novo Nordisk	덴마크	873	7.6	1,846	13.4	2,076	13.5	12.5
Merck KGaA	독일	1,960	14.7	1,994	13.5	2,068	13.6	3.7
Otsuka	일본	1,980	14.6	1,923	13.8	2,042	15.8	6.2
Daiichi Sankyo	일본	2,337	20.1	2,235	19.7	1,958	18.5	-12.4
Astellas	일본	2,614	22.8	2,293	19.6	1,689	16.2	-26.3
Actavis	미국	307	6.7	401	6.8	622	7.2	55.0
합계		104,311	12.7	106,188	12.6	105,890	12.4	-0.3

2013년 주요국가의 R&D투자 상위 국가를 보면 한국은 Hanmi(0.9억 달러), Dong-A ST(0.8억 달러), Green Cross(0.7억 달러) 순으로 높게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Johnson&Johnson(82억 달러), 영국 Glaxo Smith Kline(56억 달러), 일본 Takeda(34억 달러), 스위스 Roche (97억 달러), 중국 Shanghai Fosun(0.7억 달러)가 각 국가의 R&D에 많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주요국가 제약산업 R&D투자 상위기업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기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YoY
한국	Hanmi	43	32	61	75	90	20.3
	Dong-A ST	-	-	-	-	76	-
	Green Cross	38	49	52	66	70	4.6
미국	Johnson&Johnson	6,986	6,844	7,548	7,666	8,187	6.8
	Merck&CoInc	5,613	8,242	7,742	7,911	7,123	-10.0
	Pfizer	7,733	9,449	8,026	6,961	6,551	-5.9
영국	Glaxo Smith Kline	6,382	5,987	6,245	5,663	5,629	-0.6
	Astra Zeneca	4,356	4,093	5,523	5,243	4,269	-18.6
	Shire	638	643	730	859	933	8.6
일본	Takeda	4,584	3,171	3,474	3,405	3,411	0.2
	Otsuka	1,375	1,625	1,980	1,923	2,042	6.2
	Daiichi Sankyo	1,867	2,106	2,337	2,235	1,958	-12.4
스위스	Roche	9,535	10,740	8,610	9,257	9,745	5.3
	Novartis	7,469	9,070	9,583	9,332	9,071	-2.8
	Cosmo	6	9	7	14	24	68.0
중국	Shanghai Fosun	-	-	-	49	72	47.2
	Zhejiang Hisun	-	-	-	52	66	24.9
	Sichuan Kelun	-	-	22	88	50	-43.5

2. 의료기기 산업

1) 산업동향

2013년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약 3,238억 달러로 추정(BMI Espicom, 2014) 되며, 2012년 대비 3.9% 성장하였다. 2009년 이후 세계시장은 연평균 6.8%의 성장을 하였다.

지역별 시장 규모는 2013년 북미/남미 지역이 1,457억 달러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이후 연평균 6.8% 성장하였다. 서유럽이 848억 달러로 연평균 3.6% 성장했으며 아시아/태평양은 677억 달러 규모에 연평균 11.8%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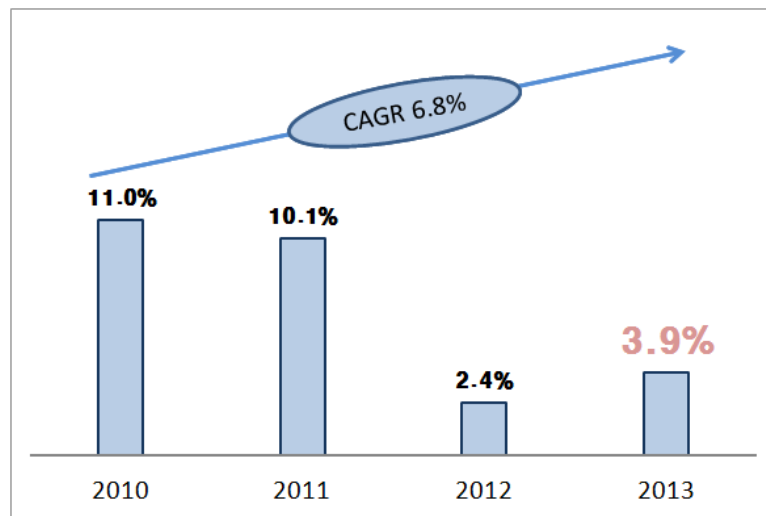


그림 3-6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연도별 성장률

자료 : BMI Espicom(2014)

BMI Espicom(2014)은 향후 세계 의료기기 시장이 2019년에 4,678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14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6.6%로 추정하였다. 시장 성장의 주요 요인은 고령화 추세,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웰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주요 국가들의 보건의료 정책, BRICs 등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고성장이 전망되는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 유망 산업으로서 부상하고 있다.

2) 분석대상 및 자료

분석대상은 Thomson Reuters Eikon에서 제공하는 Healthcare Equipment 사업부문 상장기업 중 상위 매출액 500대 기업(Healthcare Equipment 부문에서 제외된 존슨&존슨, GE(이상 미국), Siemens(독일) 등 7개 기업을 추가하여 총 50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자료는 Thomson Reuters Eikon 기업별 재무정보 및 개별기업의 2009년~2013년도 사업보고서에서 수집하여 의료기기 사업부문의 매출액(Revenue), 영업이익(Operating Income), 연구개발비(R&D Expenses)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3-11 의료기기 주요국가 분석대상 기업 현황

국가	기업명
한국 (26개)	Osstem Implant Co Ltd, Value Added Technology Co Ltd, Shinhung Co Ltd, KM Corp, Solborn Inc, I Sens Inc, Vieworks Co Ltd, Huvitz Co Ltd, Metabiomed Co Ltd, Green Cross Medical Science Corp, etc.
미국 (210개)	Johnson&Johnson(MD&D), GE Healthcare, Medtronic PLC, Baxter International Inc, Stryker Corp, Danaher(LS & Diags., Dental), Becton Dickinson and Co, Boston Scientific Corp, St. Jude Medical Inc, Abbott Laboratories, etc.
독일 (18개)	Siemens Healthcare, B. BRAUN, Draegerwerk AG & Co KGaA, Paul Hartmann AG, Carl Zeiss Meditec AG, Sartorius AG, STRATEC Biomedical AG, Eckert & Ziegler Strahlen und Medizintechnik AG, Balda AG, Medisana AG, etc.
일본 (32개)	Olympus Corp, Terumo Corp, Nipro Corp, Sysmex Corp, Nihon Kohden Corp, Nikkiso Co Ltd, Fukuda Denshi Co Ltd, JEOL Ltd, Paramount Bed Holdings Co Ltd, JMS Co Ltd, etc.
스위스 (8개)	Roche Diagnostics, Sonova Holding AG, Nobel Biocare Holding AG, Straumann Holding AG, Ypsomed Holding AG, Coltene Holding AG, IVF Hartmann Holding AG, Lifewatch AG
중국 (20개)	Shinva Medical Instrument Co Ltd, Shandong Pharmaceutical Glass Co Ltd, Jiangsu Yuyue Medical Equipment & Supply Co Ltd, Blue Sail Medical Co Ltd, Lepu Medical Technology Beijing Co Ltd, Shanghai Tofflon Science and Technology Co Ltd, Truking Technology Ltd, China Resources Wandong Medical Equipment Co Ltd, Zhuhai Hokai Medical Instruments Co Ltd, Dirui Industrial Co Ltd, etc.
기타 (193개)	Philips Healthcare, Covidien plc(medical device), Essilor International Compagnie Generale D'Optique SA, Smith & Nephew PLC, Getinge AB, Biomerieux SA, Coloplast A/S, William Demant Holding A/S, Elekta publ AB, Ansell Ltd, etc.

3) 분석결과

2013년 세계 의료기기 기업 매출액은 약 3,228억 달러로 2012년 대비 2.9% 증가하였다. 2009년 이후 세계 의료기기 기업 매출액은 연평균 5.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2013년에 들어 증가세가 줄어든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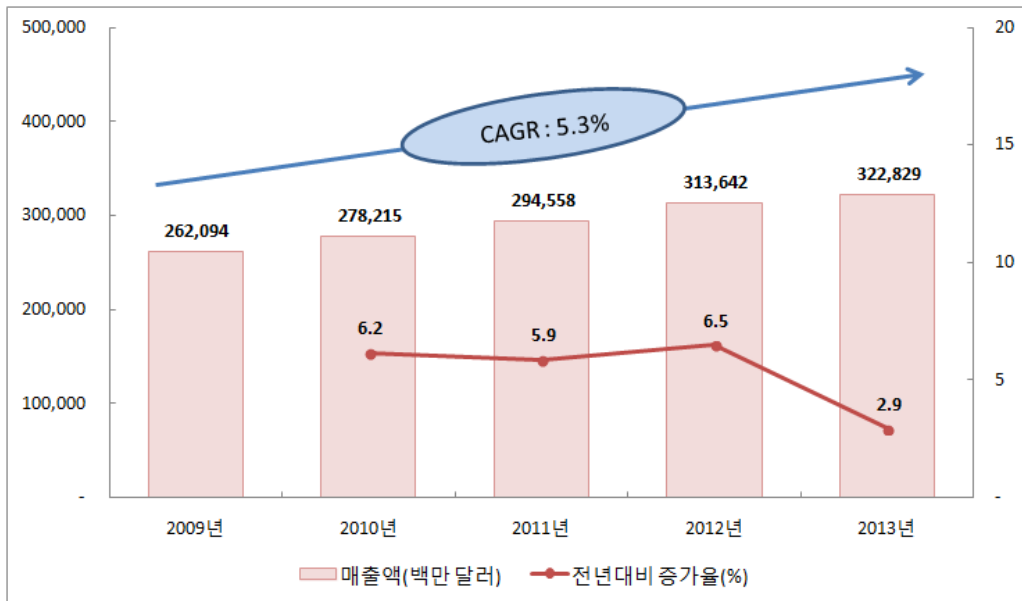


그림 3-7 의료기기 기업 매출액 규모

2013년 미국의 의료기기 기업의 매출액은 약 1,815억 달러로 세계 의료기기 기업 매출액의 5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20개 국가가 전체의 9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이 336억 달러(10.4%), 일본 254억 달러(7.9%), 스위스 154억 달러(4.8%)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의료기기 기업 매출액은 세계 15위 (18억 달러)로 전체 매출액의 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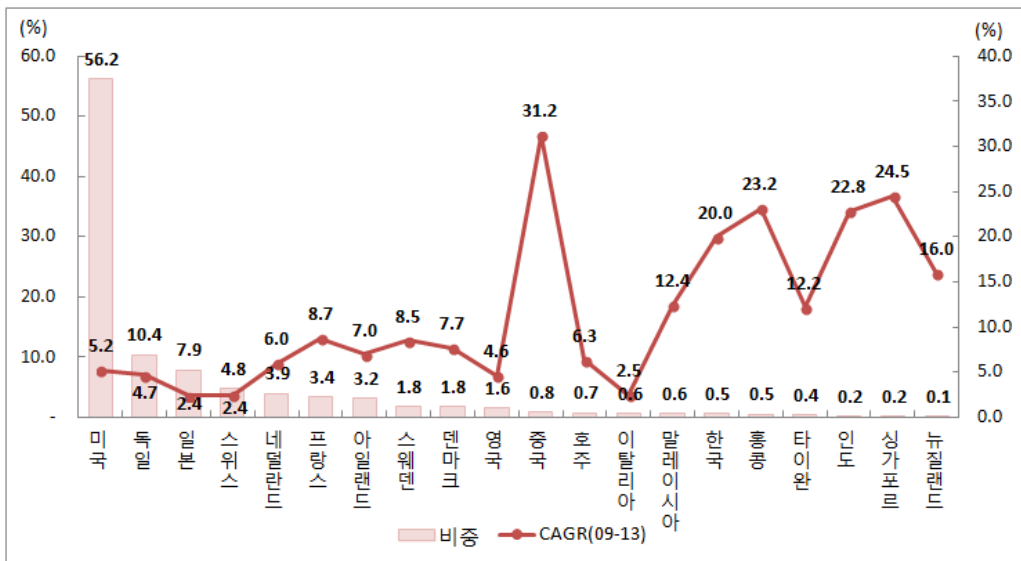


그림 3-8 국가별 의료기기 기업 매출액 비중 및 연평균성장률

표 3-12 의료기기 기업 상위 20개국 매출액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중	YoY	CAGR ('09-'13)
1	미국	148,260	156,999	165,809	174,104	181,468	56.2	4.2	5.2
2	독일	27,976	29,117	29,738	32,220	33,612	10.4	4.3	4.7
3	일본	23,085	23,774	26,852	28,675	25,371	7.9	-11.5	2.4
4	스위스	13,978	14,705	14,265	14,921	15,399	4.8	3.2	2.4
5	네덜란드	10,076	11,056	11,378	12,832	12,715	3.9	-0.9	6.0
6	프랑스	7,838	8,453	8,793	10,353	10,960	3.4	5.9	8.7
7	아일랜드	7,813	8,438	9,607	9,851	10,235	3.2	3.9	7.0
8	스웨덴	4,249	4,594	4,784	5,428	5,892	1.8	8.6	8.5
9	덴마크	4,245	4,436	4,775	5,102	5,701	1.8	11.7	7.7
10	영국	4,263	4,521	4,963	4,888	5,099	1.6	4.3	4.6
11	중국	919	1,303	1,783	2,222	2,723	0.8	22.5	31.2
12	호주	1,841	1,966	2,386	2,384	2,354	0.7	-1.3	6.3
13	이탈리아	1,658	1,825	1,712	1,740	1,829	0.6	5.1	2.5
14	말레이시아	1,130	1,615	1,754	1,798	1,805	0.6	0.4	12.4
15	한국	846	1,158	1,255	1,629	1,756	0.5	7.8	20.0
16	홍콩	651	828	1,073	1,221	1,499	0.5	22.8	23.2
17	타이완	896	1,129	1,136	1,328	1,419	0.4	6.8	12.2
18	인도	228	319	438	546	519	0.2	-4.9	22.8
19	싱가포르	209	204	274	438	502	0.2	14.7	24.5
20	뉴질랜드	258	358	385	423	466	0.1	10.2	16.0
상위20개국 합계		260,419	276,797	293,160	312,101	321,323	99.5	3.0	5.4
합계		262,094	278,215	294,558	313,642	322,829	100.0	2.9	5.3

2013년도 미국의 의료기기 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4.2%로 연평균 5.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 2012년 대비 4.3% 증가 하였으며, 일본은 11.5%의 매출액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의료기기 기업 매출액증가율은 7.8%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0.0%의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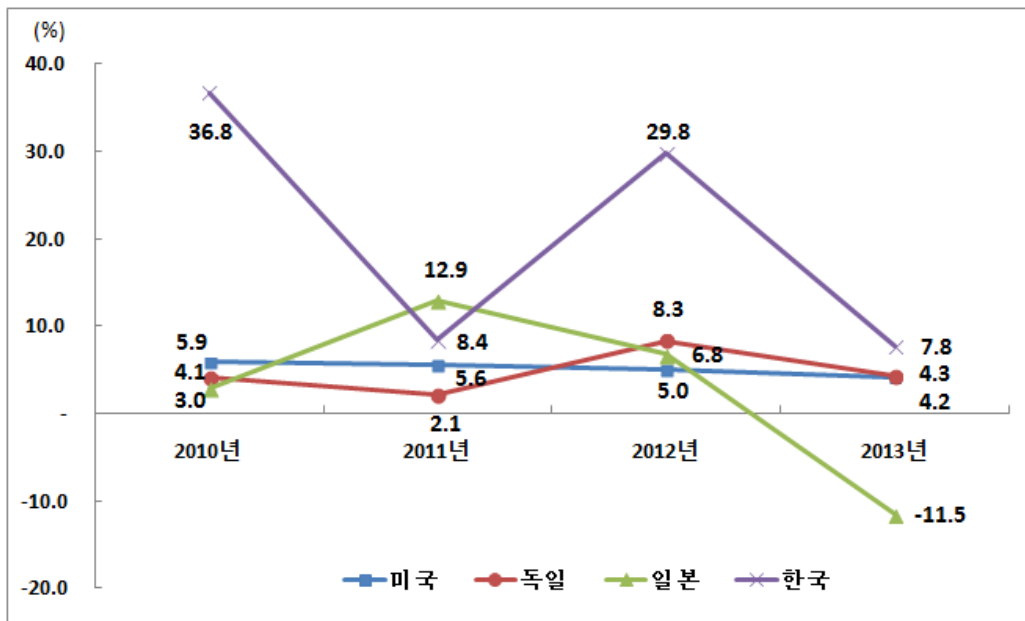


그림 3-9 주요 국가별 의료기기 기업의 매출액증가율 추이

2013년도 의료기기 매출액 상위 20개국의 전체 영업이익은 466억 달러로 전년보다 3.6%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14.4%로 전년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미국의 의료기기 기업 영업이익은 271억 달러로 2012년 대비 5.5% 증가하였다.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률은 14.9%로 전년보다 0.2%p 상승하였다. 독일은 41억 달러, 일본은 21억 달러, 스위스는 28억 달러의 영업이익으로 전년대비 각각 12.2%, 2.7%, -3.0%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률은 12.3%, 8.3%, 18.0%로 전년대비 각각 0.9%p, 1.1%p, -1.2%p 증가 추이를 보였다. 한국은 1.1억 달러의 영업이익으로 전년대비 15.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률은 6.2%로 전년대비 0.4%p 증가하였다.

표 3-13 의료기기 주요 국가별 영업이익,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YoY
	영업 이익	이익률	영업 이익	이익률	영업 이익	이익률	영업 이익	이익률	영업 이익	이익률	
미국	13,502	9.1	28,058	17.9	27,159	16.4	25,668	14.7	27,087	14.9	5.5
독일	455	1.6	2,084	7.2	2,978	10.0	3,688	11.4	4,140	12.3	12.2
일본	1,284	5.6	2,320	9.8	2,311	8.6	2,051	7.2	2,106	8.3	2.7
스위스	714	5.1	2,919	19.8	2,805	19.7	2,859	19.2	2,774	18.0	-3.0
네덜란드	-	-	1,524	13.8	1,472	12.9	1,699	13.2	2,008	15.8	18.2
프랑스	1,200	15.3	1,212	14.3	1,255	14.3	1,468	14.2	1,577	14.4	7.4
아일랜드	-	-	2,351	27.9	2,669	27.8	2,713	27.5	2,132	20.8	-21.4
스웨덴	525	12.4	715	15.6	808	16.9	880	16.2	867	14.7	-1.5
덴마크	572	13.5	1,164	26.2	1,060	22.2	1,029	20.2	1,271	22.3	23.4
영국	737	17.3	957	21.2	922	18.6	885	18.1	838	16.4	-5.3
중국	172	18.8	248	19.0	328	18.4	366	16.5	399	14.6	9.0
호주	199	10.8	266	13.5	333	14.0	171	7.2	273	11.6	60.2
이탈리아	208	12.6	298	16.3	331	19.3	237	13.6	291	15.9	22.6
말레이시아	172	15.3	275	17.0	201	11.5	251	13.9	300	16.6	19.7
한국	82	9.7	87	7.5	81	6.4	94	5.8	108	6.2	15.2
홍콩	183	28.1	226	27.3	697	65.0	268	21.9	43	2.9	-83.8
타이완	143	16.0	175	15.5	131	11.5	166	12.5	146	10.3	-12.4
인도	60	26.5	92	28.8	106	24.2	146	26.7	101	19.5	-30.7
싱가포르	0	0.1	21	10.4	27	9.7	357	81.5	104	20.7	-70.8
뉴질랜드	57	22.3	73	20.4	74	19.3	76	18.0	94	20.3	24.3
합계	20,267	7.7	45,044	16.2	45,739	15.5	45,016	14.4	46,626	14.4	3.6

2013년도 의료기기 매출액 상위 20개국의 전체 R&D 투자는 213억 달러로 전체 매출액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5.3%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R&D 투자액은 130억 달러로 매출액의 7.2%를 차지하며 전년 보다 6.1%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독일 24억 달러, 일본 10억 달러, 스위스 13억 달러를 R&D에

투자하였고 독일, 스위스는 전년대비 각각 0.5%, 19.7% 증가한 반면 일본은 12.1% 감소하였다. 한국은 0.6억 달러를 R&D에 투자하였고 이는 전년 보다 36.2% 증가한 수치이다.

표 3-14 의료기기 주요 국가별 R&D투자,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YoY
	R&D	투자 비율	R&D	투자 비율	R&D	투자 비율	R&D	투자 비율	R&D	투자 비율	
미국	7,958	5.4	11,618	7.4	11,904	7.2	12,285	7.1	13,032	7.2	6.1
독일	371	1.3	1,992	6.8	2,141	7.2	2,402	7.5	2,414	7.2	0.5
일본	973	4.2	959	4.0	1,179	4.4	1,165	4.1	1,024	4.0	-12.1
스위스	158	1.1	1,020	6.9	1,047	7.3	1,098	7.4	1,315	8.5	19.7
네덜란드	-	-	897	8.1	951	8.4	1,032	8.0	1,036	8.1	0.3
프랑스	463	5.9	450	5.3	447	5.1	515	5.0	583	5.3	13.2
아일랜드	-	-	362	4.3	460	4.8	518	5.3	508	5.0	-1.9
스웨덴	151	3.6	157	3.4	174	3.6	181	3.3	208	3.5	15.0
덴마크	289	6.8	199	4.5	120	2.5	238	4.7	254	4.5	6.9
영국	166	3.9	166	3.7	184	3.7	197	4.0	262	5.1	32.8
중국	-	-	2	0.2	4	0.2	67	3.0	86	3.1	28.3
호주	114	6.2	106	5.4	150	6.3	161	6.7	154	6.6	-4.0
이탈리아	23	1.4	25	1.4	26	1.5	28	1.6	30	1.7	6.3
말레이시아	-	-	-	-	-	-	-	-	-	-	-
한국	13	1.6	23	2.0	27	2.2	45	2.8	62	3.5	36.2
홍콩	15	2.3	20	2.4	28	2.6	57	4.6	73	4.9	28.7
타이완	36	4.0	47	4.2	56	4.9	62	4.7	65	4.6	5.2
인도	0	0.1	1	0.2	1	0.3	1	0.1	1	0.1	44.9
싱가포르	21	10.0	17	8.4	23	8.5	28	6.3	32	6.4	16.9
뉴질랜드	16	6.2	25	7.0	30	7.8	34	8.1	38	8.2	11.4
합계	10,846	4.1	18,157	6.5	19,034	6.5	20,198	6.4	21,274	6.6	5.3

2013년도 의료기기 상위 20개 기업의 매출액은 2,091억 달러로 전체 매출액의 64.8%에 해당한다. 미국의 Johnson&Johnson, GE Healthcare, Medtronic 등이 각각 285억 달러, 182억 달러, 166억 달러로 상위기업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일의 Siemens Healthcare(181억달러), 네덜란드의 Philips Healthcare(127억 달러) 등도 상위 기업에 위치하고 있다. 아시아권 기업으로는 일본의 Olympus(79억 달러), Terumo(43억 달러) 등이 상위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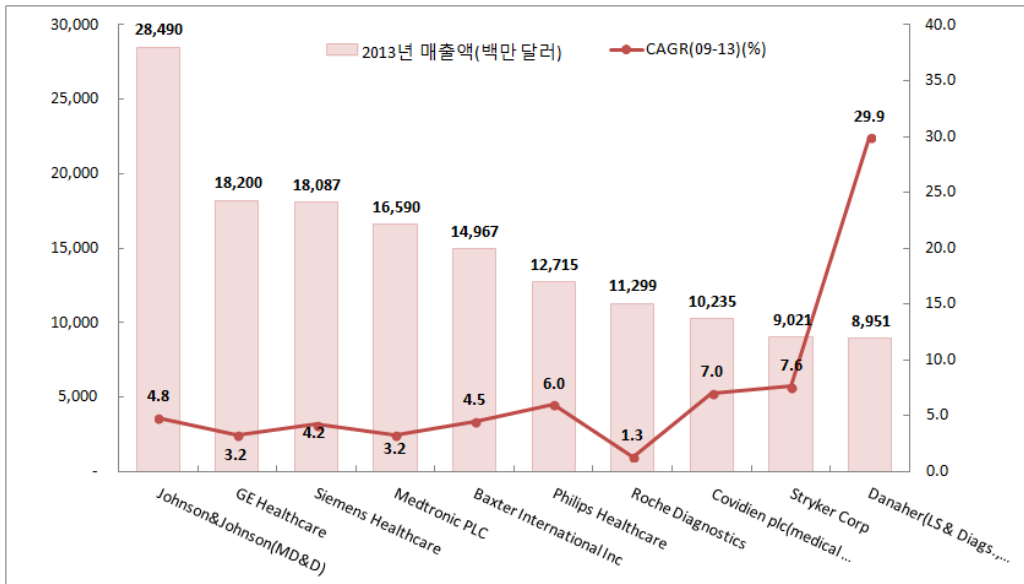


그림 3-10 2013년 주요 의료기기 기업 매출액

표 3-15 의료기기 상위 20개 기업 매출액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기업	국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중	YoY	CAGR (09-'13)
1	Johnson&Johnson	미국	23,574	24,601	25,779	27,426	28,490	8.8	3.9	4.8
2	GE Healthcare	미국	16,015	16,897	18,083	18,290	18,200	5.6	-0.5	3.2
3	Siemens Healthcare	독일	15,331	15,893	16,089	17,535	18,087	5.6	3.1	4.2
4	Medtronic	미국	14,599	15,392	15,508	16,184	16,590	5.1	2.5	3.2
5	Baxter International	미국	12,562	12,843	13,893	13,936	14,967	4.6	7.4	4.5
6	Philips Healthcare	네덜란드	10,076	11,056	11,378	12,832	12,715	3.9	-0.9	6.0
7	Roche Diagnostics	스위스	10,717	11,101	10,378	10,943	11,299	3.5	3.2	1.3
8	Covidien	아일랜드	7,813	8,438	9,607	9,851	10,235	3.2	3.9	7.0
9	Stryker	미국	6,723	7,320	8,307	8,657	9,021	2.8	4.2	7.6
10	Danaher	미국	3,142	4,123	6,639	8,508	8,951	2.8	5.2	29.9
11	Becton Dickinsonand	미국	6,987	7,124	7,584	7,708	8,054	2.5	4.5	3.6
12	Olympus	일본	9,923	9,449	10,188	10,249	7,897	2.4	-22.9	-5.5
13	Boston Scientific	미국	8,188	7,806	7,622	7,249	7,143	2.2	-1.5	-3.4
14	Essilor	프랑스	4,678	5,206	5,423	6,582	6,962	2.2	5.8	10.4
15	B.BRAUN	독일	5,178	5,685	5,925	6,488	6,865	2.1	5.8	7.3
16	St.Jude Medical	미국	4,681	5,164	5,612	5,503	5,501	1.7	-0.0	4.1
17	Abbott Laboratories	미국	7,691	8,792	5,352	4,763	4,914	1.5	3.2	-10.6
18	Zimmer Holdings	미국	4,095	4,220	4,452	4,472	4,623	1.4	3.4	3.1
19	Smith&Nephew	영국	3,772	3,962	4,270	4,137	4,351	1.3	5.2	3.6
20	Terumo	일본	3,063	3,381	3,947	4,671	4,271	1.3	-8.6	8.7
상위20개사 합계			178,810	188,452	196,036	205,985	209,137	64.8	1.5	4.0
합계			262,094	278,215	294,558	313,642	322,829	100.0	2.9	5.3

2013년도 주요국가 의료기기 매출액 상위기업을 보면 한국은 Osstem Implant(2.1억 달러), Value Added Technology(1.6억 달러), Shinhung Co Ltd(1.2억 달러) 등이 상위기업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 Johnson&Johnson(285억 달러), 독일 Siemens Healthcare(181억 달러), 일본 Olympus(79억 달러), 스위스 Roche Diagnostics(113억 달러), 중국 Shinva Medical Instrument(7억 달러) 등이 각 국가의 매출액 1위 기업으로 나타났다.

표 3-16 주요국가 의료기기 매출액 상위기업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기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YoY	CAGR ('09-'13)
한국	Osstem Implant	114	132	147	189	206	8.9	15.9
	Value Added Technology	81	127	129	165	163	-1.2	19.0
	Shinhung Co Ltd	138	150	146	144	118	-18.2	-3.9
미국	Johnson&Johnson	23,574	24,601	25,779	27,426	28,490	3.9	4.8
	GE Healthcare	16,015	16,897	18,083	18,290	18,200	-0.5	3.2
	Medtronic	14,599	15,392	15,508	16,184	16,590	2.5	3.2
독일	Siemens Healthcare	15,331	15,893	16,089	17,535	18,087	3.1	4.2
	B.BRAUN	5,178	5,685	5,925	6,488	6,865	5.8	7.3
	Draegerwerk	2,736	2,913	2,920	3,132	3,263	4.2	4.5
일본	Olympus	9,923	9,449	10,188	10,249	7,897	-22.9	-5.5
	Terumo	3,063	3,381	3,947	4,671	4,271	-8.6	8.7
	Nipro	1,780	1,903	2,356	2,561	2,559	-0.1	9.5
스위스	Roche Diagnostics	10,717	11,101	10,378	10,943	11,299	3.2	1.3
	Sonova Holding	1,097	1,424	1,760	1,796	1,892	5.3	14.6
	Nobel Biocare Holding	832	771	737	766	779	1.7	-1.6
중국	Shinva Medical Instrument	130	204	335	487	693	42.2	52.0
	Shandong Pharmaceutical Glass	182	230	222	236	255	8.3	8.8
	Jiangsu Yuyue	79	134	186	211	235	11.7	31.5

매출액 상위 20개 의료기기 기업의 전체 영업이익을 보면 466억 달러로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률은 14.4%이며, 전년 보다 3.6%p 증가하였다. Johnson&Johnson이 전년 보다 26.8% 감소한 53억 달러로 매출액 대비 18.5%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으며, Medtronic 44억 달러, GE Healthcare 30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다.

표 3-17 주요 의료기기 기업 영업이익,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단위: 백만 달러, %)

기업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YoY
		영업 이익	이익률	영업 이익	이익률	영업 이익	이익률	
Johnson&Johnson	미국	5,263	20.4	7,187	26.2	5,261	18.5	-26.8
GE Healthcare	미국	2,803	15.5	2,920	16.0	3,048	16.7	4.4
Siemens Healthcare	독일	1,715	10.7	2,333	13.3	2,720	15.0	16.6
Medtronic	미국	3,942	25.4	4,294	26.5	4,402	26.5	2.5
Baxter International	미국	2,781	20.0	2,770	19.9	2,588	17.3	-6.6
Philips Healthcare	네덜란드	1,472	12.9	1,699	13.2	2,008	15.8	18.2
Roche Diagnostics	스위스	2,321	22.4	2,331	21.3	2,348	20.8	0.7
Covidien	아일랜드	2,669	27.8	2,713	27.5	2,132	20.8	-21.4
Stryker	미국	1,686	20.3	1,741	20.1	1,256	13.9	-27.9
Danaher	미국	638	9.6	1,154	13.6	1,315	14.7	13.9
Becton Dickinsonand	미국	1,666	22.0	1,558	20.2	1,254	15.6	-19.5
Olympus	일본	416	4.1	95	0.9	224	2.8	134.6
Boston Scientific	미국	904	11.9	-3,868	-53.4	120	1.7	-103.1
Essilor	프랑스	884	16.3	1,096	16.7	1,159	16.6	5.7
B.BRAUN	독일	559	9.4	603	9.3	635	9.2	5.3
St.Jude Medical	미국	1,114	19.9	1,100	20.0	1,051	19.1	-4.5
Abbott Laboratories	미국	407	7.6	2	0.0	533	10.9	23,600.0
Zimmer Holdings	미국	1,024	23.0	1,047	23.4	1,036	22.4	-1.1
Smith&Nephew	영국	862	20.2	846	20.4	810	18.6	-4.3
Terumo	일본	716	18.1	666	14.3	570	13.3	-14.4
합계		45,739	15.5	45,016	14.4	46,626	14.4	3.6

2013년 주요국가의 영업이익 상위 국가를 보면 한국은 I Sens(0.2억달러), Osstem Implant(0.2억 달러) 순으로 영업이익이 높게 나타났다. 미국의 Johnson&Johnson(53억 달러), 독일 Siemens Healthcare(27억 달러), 일본 Terumo(6억 달러), 스위스 Roche Diagnostics(23억 달러), 중국 Lepu Medical Technology(0.7억 달러)가 각 국가의 영업이익 1위로 나타났다.

표 3-18 주요국가 의료기기 영업이익 상위기업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기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YoY
한국	I Sens	-	6	8	7	18	140.9
	Osstem Implant	11	12	14	19	17	-13.5
	Vieworks Co Ltd	5	6	7	7	12	20.7
미국	Johnson&Johnson	-	8,272	5,263	7,187	5,261	-26.8
	Medtronic	2,623	4,190	3,942	4,294	4,402	2.5
	GE Healthcare	-	2,741	2,803	2,920	3,048	4.4
독일	Siemens Healthcare	-	839	1,715	2,333	2,720	16.6
	B.BRAUN	-	586	559	603	635	5.3
	Draegerwerk	112	275	277	306	282	-7.6
일본	Terumo	546	677	716	666	570	-14.4
	Sysmex	150	165	218	232	231	-0.3
	Olympus	-23	592	416	95	224	134.6
스위스	Roche Diagnostics	-	2,347	2,321	2,331	2,348	0.7
	Sonova Holding	285	239	295	319	164	-48.6
	Straumann Holding	160	176	85	69	130	88.3
중국	Lepu Medical Technology	48	71	85	75	70	-7.1
	Shanghai Tofflon Scienceand Technology	12	24	39	42	53	25.9
	Shinva Medical Instrument	7	11	21	34	49	43.6

매출액 상위 20개 의료기기 기업의 전체 R&D투자를 보면 213억 달러로 매출액 대비 투자 비율은 6.6%이며, 전년 보다 5.3% 증가하였다. Johnson&Johnson이 전년 보다 6.1% 증가한 18억 달러로 매출액 대비 6.3%를 R&D에 투자를 하였으며, Siemens Healthcare 16억 달러, Medtronic 16억 달러를 R&D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주요 의료기기 기업 R&D투자,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단위: 백만 달러, %)

기업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YoY
		R&D	투자 비율	R&D	투자 비율	R&D	투자 비율	
Johnson&Johnson	미국	1,751	6.8	1,681	6.1	1,783	6.3	6.1
GE Healthcare	미국	1,037	5.7	925	5.1	959	5.3	3.7
Siemens Healthcare	독일	1,512	9.4	1,689	9.6	1,633	9.0	-3.3
Medtronic	미국	1,472	9.5	1,490	9.2	1,557	9.4	4.5
Baxter International	미국	946	6.8	940	6.7	1,015	6.8	8.0
Philips Healthcare	네덜란드	951	8.4	1,032	8.0	1,036	8.1	0.3
Roche Diagnostics	스위스	844	8.1	888	8.1	1,097	9.7	23.6
Covidien	아일랜드	460	4.8	518	5.3	508	5.0	-1.9
Stryker	미국	462	5.6	471	5.4	536	5.9	13.8
Danaher	미국	419	6.3	494	5.8	551	6.2	11.5
Becton Dickinsonand	미국	470	6.2	472	6.1	494	6.1	4.7
Olympus	일본	466	4.6	400	3.9	302	3.8	-24.6
Boston Scientific	미국	895	11.7	886	12.2	861	12.1	-2.8
Essilor	프랑스	196	3.6	214	3.2	225	3.2	5.5
B.BRAUN	독일	231	3.9	246	3.8	290	4.2	17.9
St.Jude Medical	미국	705	12.6	676	12.3	691	12.6	2.2
Abbott Laboratories	미국	378	7.1	365	7.7	343	7.0	-6.2
Zimmer Holdings	미국	238	5.4	226	5.0	204	4.4	-9.5
Smith&Nephew	영국	167	3.9	171	4.1	231	5.3	35.1
Terumo	일본	245	6.2	294	6.3	288	6.7	-2.0
합계		19,034	6.5	20,198	6.4	21,274	6.6	5.3

2013년 주요국가의 R&D투자 상위 국가를 보면 한국은 Value Added Technology(0.08억달러), Curexo(0.07억달러), Solborn(0.07억 달러) 순으로 높게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Johnson&Johnson(18억 달러), 독일 Siemens Healthcare(16억 달러), 일본 Olympus(3억 달러), 스위스 Roche Diagnostics(11억 달러), 중국 JiangsuYuyue(0.13억 달러)가 각 국가의 R&D에 많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0 주요국가 의료기기 R&D투자 상위기업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기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YoY
한국	Value Added Technology	1	4	4	4	8	76.6
	Curexo	1	3	2	4	7	71.0
	Solborn	3	3	3	5	7	35.9
미국	Johnson&Johnson	-	1,803	1,751	1,681	1,783	6.1
	Medtronic	1,355	1,424	1,472	1,490	1,557	4.5
	Baxter International	917	915	946	940	1,015	8.0
독일	Siemens Healthcare	-	1,431	1,512	1,689	1,633	-3.3
	B.BRAUN	-	200	231	246	290	17.9
	Draegerwerk	214	198	208	260	277	6.4
일본	Olympus	465	385	466	400	302	-24.6
	Terumo	174	188	245	294	288	-2.0
	Sysmex	109	120	149	144	129	-10.5
스위스	Roche Diagnostics	-	835	844	888	1,097	23.6
	Sonova Holding	68	83	117	129	120	-6.8
	Nobel Biocare Holding	36	42	32	69	86	23.1
중국	JiangsuYuyue	-	-	-	11	13	11.1
	Shanghai Tofflon Scienceand Technology	-	-	-	8	12	63.5
	Lepu Medical Technology	-	-	-	9	12	38.8

3. 화장품 산업

1) 산업동향

세계 화장품 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 2,495억 달러로 전년대비 3.9% 증가했다. 지역별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2.5% 증가한 유럽이 936억 달러로 가장 크며, 이어서 아시아/태평양 786억 달러, 북미/중남미 708억 달러 순이다. 중동 및 아프리카는 66억 달러로 세계시장에서 2.6%를 차지했으나, 연평균 6.4% 증가로 미루어 볼 때 향후 전망은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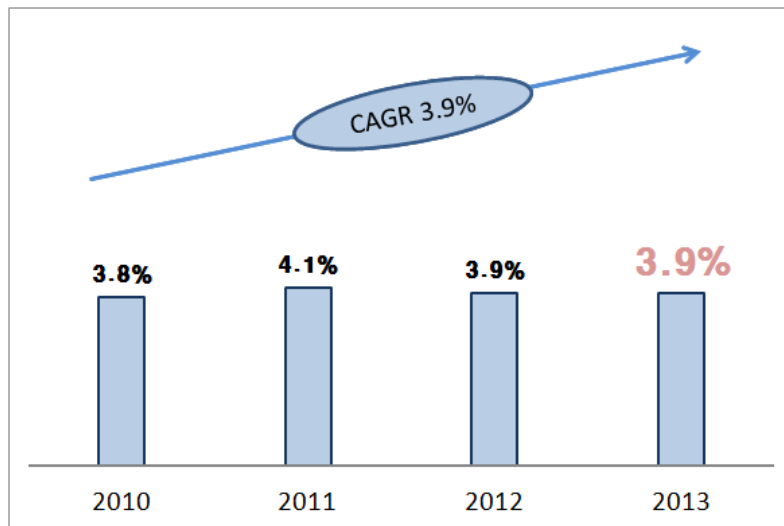


그림 3-11 세계 화장품 시장의 연도별 성장률

자료 : Datamonitor Personal Care Market Data, 2014(Oct)

전 세계 화장품 주도국인 유럽과 미국의 저성장으로 세계 화장품 시장은 4%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화장품 업체들은 고성장중인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매년 그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한류' 열풍의 확산과 더불어 동남아시아 국가 등으로 수출국이 다변화되면서 수출이 늘고 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화장품 시장의 수요 확대로 화장품 OEM/ODM 업체의 고객도 확대되고 있어 이

부문 또한 향후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한편, 기후변화에 따라 탄소 배출이 적고 친환경적인 제품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성 요구도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기농·천연화장품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향후 남녀노소에 무관하게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친환경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분석대상 및 자료

미국의 뷰티·패션 전문 일간지 WWD(Women's Wear Daily)에서 발표한 2013년도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자료는 WWD(Women's Wear Daily)에서 발표한 2013년 기업별 재무정보를 수집하여 매출액(Revenue)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3-21 화장품 주요국가 분석대상 기업 현황

국 가	기 업 명
한국 (3개)	AMOREPACIFIC CORP, LG HOUSEHOLD & HEALTH CARE, ABLE C&C
미국 (31개)	PROCTER & GAMBLE, THE ESTÉE LAUDER COS., AVON PRODUCTS, JOHNSON & JOHNSON, COTY, LIMITED BRANDS, MARY KAY, COLGATE-PALMOLIVE CO., ALTICOR, GUTHY-RENKER, etc.
프랑스 (15개)	L'ORÉAL, CHANEL, LVMH MOËT HENNESSY LOUIS VUITTON, GROUPE YVES ROCHER, GROUPE CLARINS, L'OCCITANE EN PROVENCE, GROUPE PIERRE FABRE, SISLEY, NAOS LIGHTHOUSE, ALÈS GROUPE, etc.
일본 (13개)	SHISEIDO CO., KAO CORP., KOSÉ CORP., POLA ORBIS HOLDINGS, MANDOM CORP., DHC CORP., NIPPON MENARD COSMETIC CO., FANCL CORP., HOYU CO., FUJIFILM HOLDINGS CORP., etc.
독일 (7개)	BEIERSDORF, HENKEL, COSNOVA, MÄURER & WIRTZ, ARTDECO COSMETIC GROUP, DR. WOLFF-GRUPPE, DR. BABOR
중국 (5개)	SHANGHAI JAHWA UNITED CO., JIANGSU LONGLIQI GROUP CO., JALA GROUP CO., LI & FUNG, GUANGDONG MARUBI BIOTECHNOLOGY CO.
기타 (26개)	UNILEVER, NATURA COSMÉTICOS, BELCORP, ORIFLAME COSMETICS, PUIG, GRUPO BOTICÁRIO, HYPERMARCAS, EUROITALIA, BOOTS, DABUR INDIA, etc.

주: UNILEVER는 영국·네덜란드 합작 기업임

3) 분석결과

2013년 세계 화장품 기업 매출액은 약 2,048억 달러로 나타났다. 미국의 화장품 기업 매출액은 약 745억 달러로 세계 화장품 기업 매출액의 3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15개 국가가 전체 매출액의 9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가 508억 달러(24.7%), 일본 211억 달러(10.3%), 독일 121억 달러(5.9%)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화장품 기업 매출액은 세계 6위(55억 달러)로 전체 매출액의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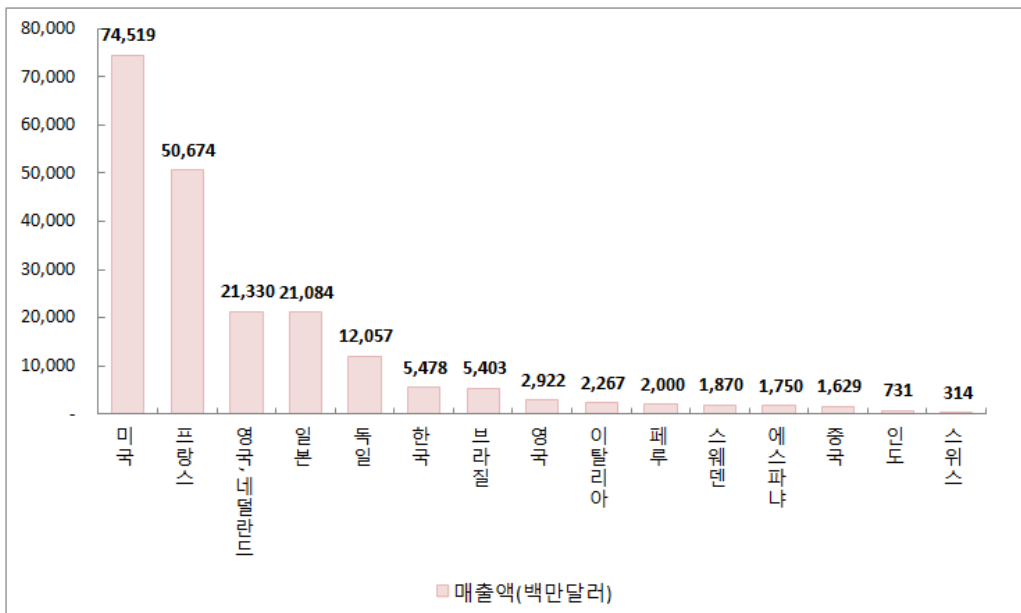


그림 3-12 국가별 화장품 기업 매출액

표 3-22 화장품 기업 상위 15개국 매출액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13년	비중	기업수
1	미국	74,519	36.4	31
2	프랑스	50,674	24.7	15
3	영국, 네덜란드	21,330	10.4	1
4	일본	21,084	10.3	13
5	독일	12,057	5.9	7
6	한국	5,478	2.7	3
7	브라질	5,403	2.6	4
8	영국	2,922	1.4	5
9	이탈리아	2,267	1.1	8
10	페루	2,000	1.0	1
11	스웨덴	1,870	0.9	1
12	에스파냐	1,750	0.9	1
13	중국	1,629	0.8	5
14	인도	731	0.4	1
15	스위스	314	0.2	1
상위15개국 합계		204,028	99.6	-
합계		204,792	100.0	-

2013년도 화장품 상위 20개 기업의 매출액은 1,579억 달러로 전체 매출액의 77.1%에 해당한다. 프랑스의 L'ORÉAL(305억 달러), 영국·네덜란드의 UNILEVER(213억 달러), 미국의 PROCTER & GAMBLE(205억 달러), THE ESTÉE LAUDER COS.(104억 달러), 일본의 SHISEIDO CO.(78억 달러)가 상위 5개 기업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기업으로는 AMOREPACIFIC CORP.이 33억 달러로 매출액 17위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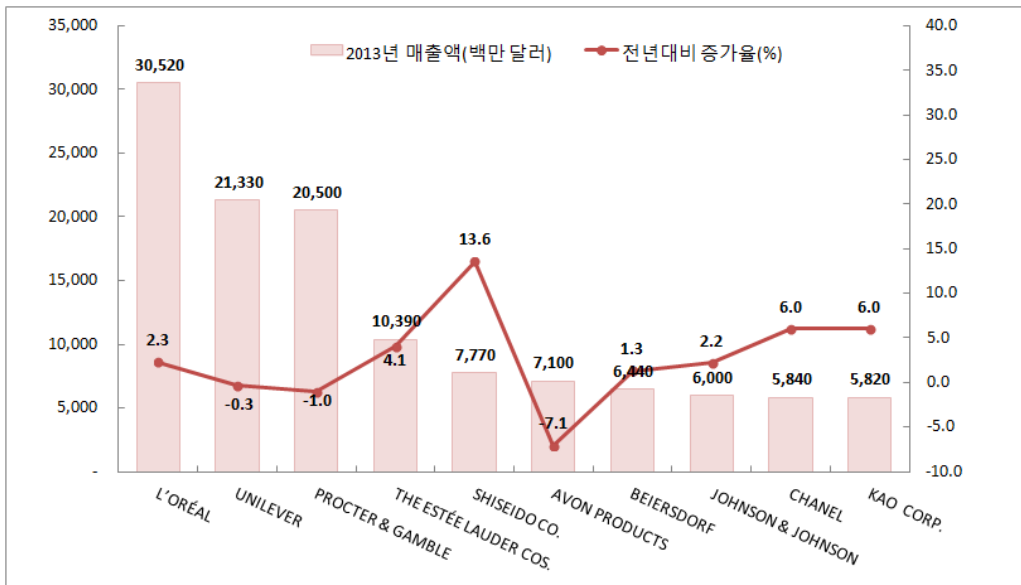


그림 3-13 2013년 주요 화장품 기업 매출액

표 3-23 화장품 상위 20개 기업 매출액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기업	국가	2013년	비중	성장률
1	L'ORÉAL	프랑스	30,520	14.9	2.3
2	UNILEVER	영국, 네덜란드	21,330	10.4	-0.3
3	PROCTER&GAMBLE	미국	20,500	10.0	-1.0
4	THEESTÉE LAUDER COS.	미국	10,390	5.1	4.1
5	SHISEIDO CO.	일본	7,770	3.8	13.6
6	AVON PRODUCTS	미국	7,100	3.5	-7.1
7	BEIERSDORF	독일	6,440	3.1	1.3
8	JOHNSON&JOHNSON	미국	6,000	2.9	2.2
9	CHANEL	프랑스	5,840	2.9	6.0
10	KAO CORP.	일본	5,820	2.8	6.0
11	LVMH MOËT HENNESSY LOUIS VUITTON	프랑스	4,940	2.4	2.9
12	COTY	미국	4,540	2.2	-1.0
13	HENKEL	독일	4,440	2.2	-0.6
14	LIMITED BRANDS	미국	3,900	1.9	8.3
15	MARY KAY	미국	3,400	1.7	17.2
16	COLGATE-PALMOLIVE CO.	미국	3,370	1.6	1.8
17	AMOREPACIFIC CORP.	한국	3,320	1.6	15.1
18	NATURA COSMÉTICOS	브라질	3,260	1.6	10.5
19	ALTICOR	미국	2,610	1.3	-
20	GROUPE YVES ROCHER	프랑스	2,380	1.2	1.5
상위20개사합계			157,870	77.1	-
합계			204,792	100.0	-

2013년도 주요국가 화장품 매출액 상위기업을 보면 한국은 AMOREPACIFIC CORP.(33억 달러), LG HOUSEHOLD & HEALTH CARE(18억 달러), ABLE C&C(4억 달러) 등이 상위기업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 PROCTER & GAMBLE(205억 달러), 프랑스 L'ORÉAL(305억 달러), 일본 SHISEIDO CO.(78억 달러), 독일 BEIERSDORF(64억 달러), 중국 SHANGHAI JAHWA UNITED CO.(6억 달러) 등이 각 국가의 매출액 1위 기업으로 나타났다.

표 3-24 주요국가 화장품 매출액 상위기업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기업	2013년	성장률
한국	AMOREPACIFIC CORP.	3,320	15.1
	LG HOUSEHOLD & HEALTH CARE	1,760	14.7
	ABLE C&C	398	-2.2
미국	PROCTER & GAMBLE	20,500	-1.0
	THE ESTÉE LAUDER COS.	10,390	4.1
	AVON PRODUCTS	7,100	-7.1
프랑스	L'ORÉAL	30,520	2.3
	CHANEL	5,840	6.0
	LVMH MOËT HENNESSY LOUIS VUITTON	4,940	2.9
일본	SHISEIDO CO.	7,770	13.6
	KAO CORP.	5,820	6.0
	KOSÉ CORP.	1,840	6.9
독일	BEIERSDORF	6,440	1.3
	HENKEL	4,440	-0.6
	COSNOVA	329	16.7
중국	SHANGHAI JAHWA UNITED CO.	643	8.8
	JIANGSU LONGLIQI GROUP CO.	305	3.3
	JALA GROUP CO.	302	8.6

제4장 주요 결과 및 요약

1. 제약 산업

2013년 세계 제약시장규모는 약 9,906억 달러로 추정되며, 2012년 대비 3.3% 성장하였다. 2009년 이후 세계시장은 연평균 4.3%의 성장을 하였다.

지역별 시장 규모는 북미지역이 3,396억 달러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이후 연평균 1.2% 성장하였다. 다음으로 유럽지역이 2,203억 달러, 아시아/아프리카/호주 1,873억 달러, 일본 1,136억 달러, 중남미 748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아프리카/호주, 중남미의 시장규모가 2009년 이후 각각 연평균 15.1%, 11.8% 성장하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표 4-1 세계 제약산업 지역별 시장규모

(단위: 억 달러, %)

지역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CAGR ('09~'13)
북미	3,238	3,351	3,462	3,490	3,396	1.2
유럽	2,639	2,532	2,551	2,243	2,203	-4.4
아시아/아프리카/호주	1,066	1,297	1,631	1,681	1,873	15.1
일본	950	1,023	1,147	1,105	1,136	4.6
중남미	479	543	629	686	748	11.8
합계	8,373	8,746	9,422	9,590	9,906	4.3

주 : 2013년 세계시장규모는 2012년 실측값에 2013년 예상성장률(최소)을 적용하여 산출한 추정치임(IMS Health Data 기준)

자료 : IMS Health, IMS Health Market Prognosis, June 2013

이러한 세계 제약시장의 급격한 확대는 최근의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세계적인 인구고령화 추세에 따라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치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경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전 세계 질병의 70%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소득증대 및 생활패턴의 변화 등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한 의료분야의 지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2013년 세계 제약기업 매출액은 약 8,515억 달러로 2012년 대비 1.1% 증가하였다. 2009년 이후 세계 제약기업 매출액은 연평균 5.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2010년 이후 증가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

2013년 미국 제약기업의 매출액은 약 2,731억 달러로 세계 제약기업 매출액의 3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20개 국가가 전체의 9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가 1,090억 달러(12.8%), 일본 954억 달러(11.2%), 영국 787억 달러(9.2%)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제약기업 매출액은 세계 11위(134억 달러)로 전체 매출액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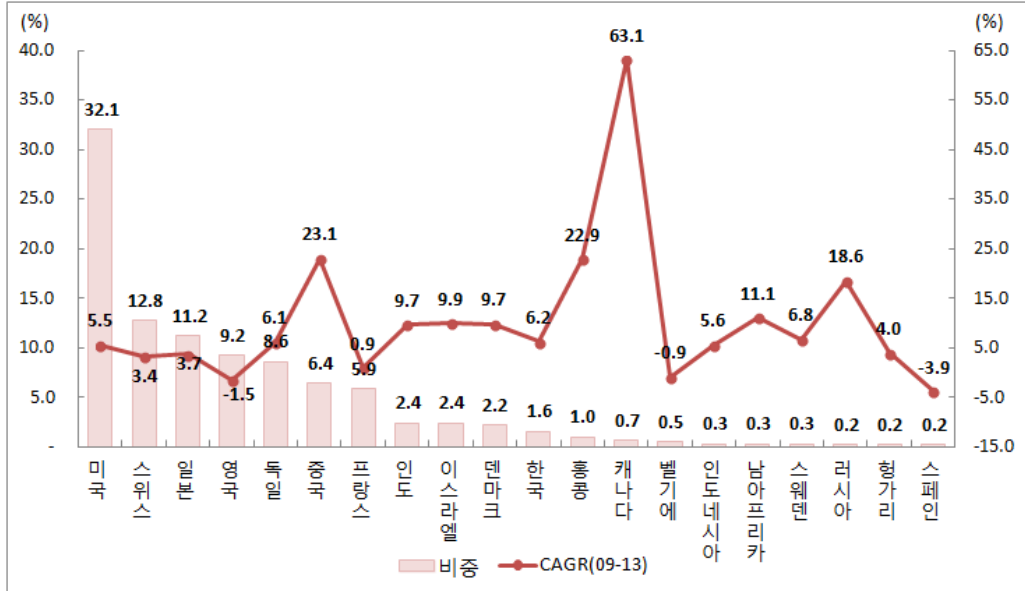


그림 4-1 국가별 제약기업 매출액 비중 및 연평균성장률

2. 의료기기 산업

2013년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약 3,238억 달러로 추정(BMI Espicom, 2014)되며, 2012년 대비 3.9% 성장하였다. 2009년 이후 세계시장은 2010년에 11.0% 증가하였다가, 2011년 10.1% 증가, 2012년에 2.4%증가했다가, 이후 다시 성장률이 점차 호전되는 추세이며, 연평균 6.8%의 성장을 하였다.

지역별 시장 규모는 2013년 북미/남미 지역이 1,457억 달러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이후 연평균 6.8% 성장하였다. 서유럽이 848억 달러로 연평균 3.6% 성장했으며 아시아/태평양은 677억 달러 규모에 연평균 11.8%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표 4-2 세계 의료기기산업 지역별 시장규모

(단위: 억 달러, %)

지역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CAGR (‘09~’13)
북미/남미	1,119	1,263	1,372	1,394	1,457	6.8
아시아/태평양	433	523	601	670	677	11.8
서유럽	737	761	823	792	848	3.6
중앙 및 동유럽	146	156	179	188	176	4.8
중동/아프리카	54	60	68	74	80	10.3
합계	2,489	2,763	3,043	3,117	3,238	6.8

자료 : BMI Espicom(2014)

의료기기산업은 경제성장, 고령화,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고성장이 전망되는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BMI Espicom(2014)은 향후 세계 의료기기 시장이 2019년에 4,678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14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6.6%로 추정하였다. 시장 성장의 주요 요인은 고령화 추세,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웰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주요 국가들의 보건의료 정책, BRICs 등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고성장이 전망되는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서 부상하고 있다.

2013년 세계 의료기기 기업 매출액은 약 3,228억 달러로 2012년 대비 2.9% 증가하였다. 2009년 이후 세계 의료기기 기업 매출액은 연평균 5.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2013년에 들어 증가세가 줄어든 추세이다.

2013년 미국의 의료기기 기업의 매출액은 약 1,815억 달러로 세계 의료기기 기업 매출액의 5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20개 국가가 전체의 9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이 336억 달러(10.4%), 일본 254억 달러(7.9%), 스위스 154억 달러(4.8%)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의료기기 기업 매출액은 세계 15위(18억 달러)로 전체 매출액의 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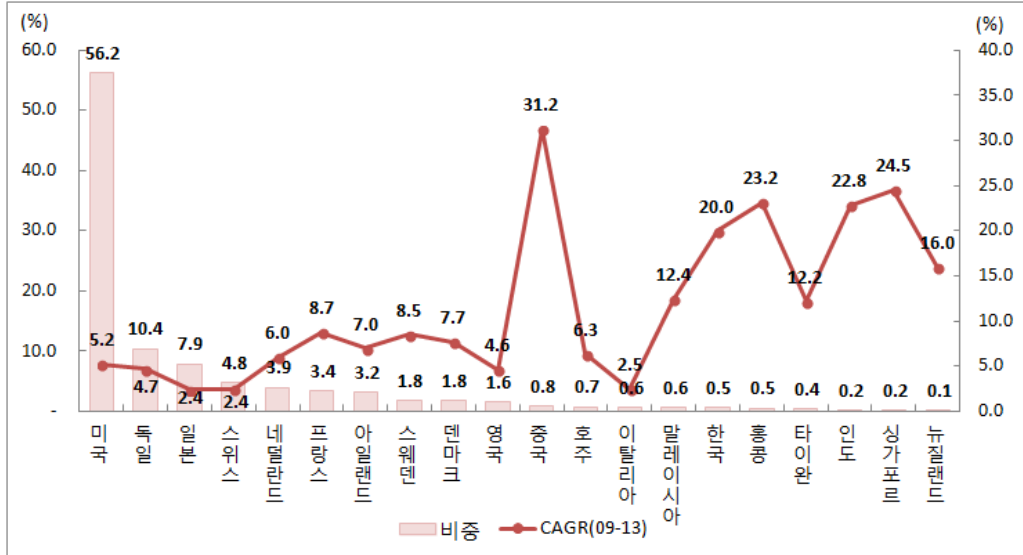


그림 4-2 국가별 의약품 기업 매출액 비중 및 연평균성장률

3. 화장품 산업

2013년 세계 화장품 시장규모는 2,495억 달러로 전년대비 3.9% 증가했다. 지역별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2.5% 증가한 유럽이 936억 달러로 가장 크며, 이어서 아시아/태평양 786억 달러, 북미/중남미 708억 달러 순이다. 한편 중동 및 아프리카는 66억 달러로 세계시장에서 2.6%를 차지했으나, 연평균 6.4% 증가로 미루어 볼 때 향후 전망은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4-3 세계 화장품산업 지역별 시장규모

(단위: 억 달러, %)

지역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CAGR (‘09~’13)
유럽	848	869	890	913	936	2.5
아시아/태평양	642	676	710	747	786	5.2
북미/중남미	597	621	652	679	708	4.4
중동/아프리카	51	55	58	62	66	6.4
합계	2,138	2,220	2,310	2,401	2,495	3.9

주 : 1) Datamonitor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화장품 유형 위주로 자료를 분석함

2) CAGR은 연평균 증가율(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 의미함

자료 : Datamonitor Personal Care Market Data, 2014(Oct)

전 세계 화장품 주도국인 유럽과 미국의 저성장으로 세계 화장품 시장은 4%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화장품 업체들은 고성장중인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매년 그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한류’ 열풍의 확산과 더불어 동남아시아 국가 등으로 수출국이 다변화되면서 수출이 늘고 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화장품 시장의 수요 확대로 화장품 OEM/ODM 업체의 고객도 확대되고 있어 이 부문 또한 향후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한편, 기후변화에 따라 탄소 배출이 적고 친환경적인 제품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성 요구도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기농·천연화장품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향후 남녀노소에 무관하게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친환경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세계 화장품 기업 매출액은 약 2,048억 달러로 나타났다. 미국의 화장품 기업 매출액은 약 745억 달러로 세계 화장품 기업 매출액의 3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15개 국가가 전체 매출액의 9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가 508억 달러(24.7%), 일본 211억 달러(10.3%), 독일 121억 달러(5.9%)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화장품 기업 매출액은 세계 6위(55억 달러)로 전체 매출액의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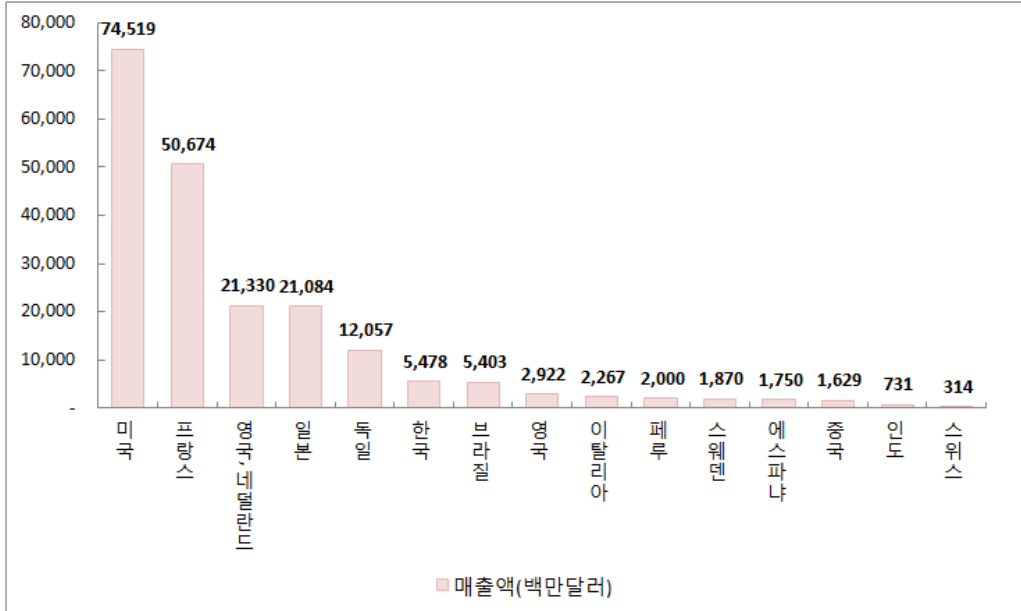


그림 4-3 국가별 화장품 기업 매출액

부록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부표 1 제약산업 국가별 매출액 순위(2013년 기준 상위 10개사)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기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YoY	CAGR (09-'13)
한국	Yuhan	556	592	586	730	899	23.1	12.8
	Green Cross	1,310	752	706	806	894	11.0	-9.1
	Daewoong	506	180	254	774	804	3.9	12.2
	Hanmi	593	301	523	634	696	9.7	4.1
	Daewoong	400	457	613	629	650	3.4	12.9
	Dong-A Socio	744	851	911	456	544	19.3	-7.5
	Chongkundang	389	488	491	546	534	-2.2	8.3
	JW	478	495	445	481	505	4.9	1.4
	Dong-A ST	-	-	-	-	477	-	-
	Kwangdong	238	259	271	313	446	42.7	17.1
미국	Johnson&Johnson	61,897	61,587	65,030	67,224	71,312	6.1	3.6
	Pfizer	49,269	65,165	61,035	54,657	51,584	-5.6	1.2
	Merck&Colnc	27,428	45,987	48,047	47,267	44,033	-6.8	12.6
	Eli Lilly	21,836	23,076	24,287	22,603	23,113	2.3	1.4
	AbbVie	14,214	15,638	17,444	18,380	18,790	2.2	7.2
	Bristol-Myers Squibb	18,808	19,484	21,244	17,621	16,385	-7.0	-3.4
	Actavis	2,793	3,567	4,584	5,915	8,678	46.7	32.8
	Mylan NV	5,093	5,451	6,130	6,796	6,909	1.7	7.9
	Allergan	4,504	4,919	5,216	5,647	6,300	11.6	8.8
	Zoetis	2,760	3,582	4,233	4,336	4,561	5.2	13.4
영국	Glaxo Smith Kline	45,826	44,288	42,546	42,953	43,882	2.2	-1.1
	Astra Zeneca	32,804	33,269	33,591	27,973	25,711	-8.1	-5.9
	Shire	3,008	3,471	4,263	4,527	4,934	9.0	13.2
	Hikma	637	731	918	1,109	1,365	23.1	21.0

국가	기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YoY	CAGR (09-13)
	Indivior	-	-	1,254	1,339	1,216	-9.2	-
	BTG	121	150	179	315	355	12.6	30.8
	Dechra	576	552	625	195	288	47.4	-15.9
	EastPharma	224	254	242	232	217	-6.4	-0.7
	Cathay	74	82	91	109	115	5.1	11.5
	Skye	90	91	86	81	104	27.8	3.5
일본	Takeda	15,564	15,685	17,070	18,226	16,530	-9.3	1.5
	Otsuka	9,672	11,602	13,561	13,946	12,932	-7.3	7.5
	Daiichi Sankyo	8,520	10,187	11,634	11,338	10,560	-6.9	5.5
	Astellas	9,770	10,431	11,473	11,709	10,425	-11.0	1.6
	Eisai	7,909	8,594	9,247	7,827	6,090	-22.2	-6.3
	Mitsubishi Tanabe	4,196	4,331	4,925	4,918	4,450	-9.5	1.5
	Chugai	4,617	4,677	4,855	4,456	4,023	-9.7	-3.4
	Sumitomo Dainippon	2,671	3,170	4,564	4,232	3,692	-12.8	8.4
	Kyowa Hakko Kirin	3,327	5,098	4,467	3,841	3,235	-15.8	-0.7
	Taisho	-	-	-	3,276	3,028	-7.6	-
스위스	Novartis	45,103	51,561	59,375	57,561	52,716	-8.4	4.0
	Roche	47,369	50,855	45,362	49,699	52,397	5.4	2.6
	Galenica	2,811	3,325	3,400	3,598	3,763	4.6	7.6
	Cosmo	38	43	43	79	77	-1.4	19.3
중국	Harbin	1,564	1,902	2,774	2,835	2,989	5.4	17.6
	Guangzhou Baiyunshan	569	681	864	1,936	2,909	50.2	50.4
	Yunnan Baiyao	1,051	1,529	1,797	2,217	2,612	17.8	25.6
	Kangmei	348	502	966	1,792	2,207	23.1	58.7
	North China	725	1,561	1,947	1,786	2,055	15.1	29.8

국가	기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YoY	CAGR (09-13)
	Zhejiang Int'l Group	744	1,007	1,355	1,700	2,043	20.2	28.7
	Tasly	585	706	1,044	1,500	1,835	22.4	33.1
	Shanghai Fosun	567	691	1,030	1,178	1,651	40.1	30.6
	Beijing Tongrentang	482	750	971	1,207	1,440	19.3	31.5
	Zhejiang Hisun	587	690	820	931	1,421	52.6	24.8

부표 2 제약산업 국가별 영업이익 순위(2013년 기준 상위 10개사)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기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YoY
한국	Celltrion	62	94	154	183	93	-49.3
	Green Cross	113	152	91	46	90	95.5
	Daewoong	22	19	44	62	87	40.0
	Chongkundang	44	70	72	75	78	4.8
	Daewoong	31	59	51	35	64	84.7
	Hanmi Pharm	63	-9	18	43	57	30.8
	Yuhan	74	87	46	33	41	25.4
	Kwangdong	28	35	35	34	39	15.4
	Dong-A ST	-	-	-	-	35	-
	Dong-A Socio	87	137	98	28	30	7.4
미국	Pfizer	11,940	11,025	12,666	12,138	16,156	33.1
	Johnson&Johnson	15,755	16,947	12,361	13,775	15,471	12.3
	Merck&Colnc	2,387	2,370	7,670	9,213	5,956	-35.4
	AbbVie	4,932	4,717	3,621	5,817	5,664	-2.6
	Eli Lilly	5,587	6,530	5,529	4,734	5,370	13.4
	Bristol-Myers Squibb	4,822	5,789	6,717	2,180	2,818	29.3
	Allergan	928	259	1,375	1,611	1,809	12.3
	Mylan NV	523	720	1,005	1,110	1,161	4.6
	Zoetis	-148	178	394	710	690	-2.8
	Perrigo	234	336	490	569	679	19.3
영국	Glaxo Smith Kline	13,605	5,901	12,924	11,863	12,102	2.0
	Astra Zeneca	11,543	11,494	12,795	8,148	3,712	-54.4
	Shire	625	789	1,109	1,045	1,734	65.9
	Indivior	-	-	872	884	695	-21.4

국가	기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YoY
	Hikma	107	135	119	167	336	101.2
	BTG	-13	3	-22	32	39	22.6
	Dechra	29	30	33	15	27	77.6
	Skye	22	22	15	3	23	715.0
	Alliance	14	26	19	20	22	10.1
	East Pharma	3	-0	-2	30	14	-51.0
일본	Otsuka	886	1,004	1,482	1,706	1,746	2.4
	Astellas	2,457	1,945	1,291	1,404	1,279	-8.9
	Daiichi Sankyo	-2,990	1,099	1,347	376	1,048	178.9
	Eisai	791	872	1,338	1,162	802	-31.0
	Chugai	953	784	716	859	748	-13.0
	Takeda	3,101	4,496	4,361	2,770	690	-75.1
	Mitsubishi Tanabe	462	538	764	760	669	-12.1
	Kyowa Hakko Kirin	234	489	528	559	448	-19.9
	Taisho	-	-	-	425	351	-17.3
	Ono	360	429	415	457	318	-30.4
스위스	Roche	11,856	14,447	14,349	15,401	18,332	19.0
	Novartis	9,982	11,526	10,998	11,193	10,969	-2.0
	Galenica	256	346	349	384	437	13.8
	Cosmo	6	6	12	35	18	-49.2
중국	Shanghai Fosun	471	173	251	327	466	42.5
	Yunnan Baiyao	101	158	218	288	436	51.3
	Kangmei	84	120	182	272	360	32.2
	Jiangsu Hengrui Medicine	113	128	164	209	240	14.9
	Shan Dong Dong-EE-Jiao	69	106	164	198	234	18.4

70 2014년 보건산업 국제경쟁력 분석 - 경영성과편

국가	기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YoY
	China Resources Sanjiu	130	146	147	204	233	14.5
	Tasly	57	81	118	168	231	37.5
	Beijing Tongrentang	67	92	125	168	209	23.9
	Sichuan Kelun	74	114	168	182	190	4.2
	Jilin Aodong	206	186	377	103	186	81.1

부표 3 제약산업 국가별 R&D투자 순위(2013년 기준 상위 10개사)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기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YoY
한국	Hanmi	43	32	61	75	90	20.3
	Dong-A ST	-	-	-	-	76	-
	Green Cross	38	49	52	66	70	4.6
	LG Life Sciences	40	59	55	62	63	2.2
	Dong-A Socio	91	98	103	41	36	-10.0
	Yuhan	14	21	25	23	31	31.2
	Chongkundang	14	22	25	31	26	-16.2
	Boryung	15	15	22	27	23	-12.1
	Celltrion	5	14	17	28	23	-18.6
	Handok	14	14	19	18	22	24.6
미국	Johnson&Johnson	6,986	6,844	7,548	7,666	8,187	6.8
	Merck&Colnc	5,613	8,242	7,742	7,911	7,123	-10.0
	Pfizer	7,733	9,449	8,026	6,961	6,551	-5.9
	Eli Lilly	4,327	4,884	5,021	5,278	5,531	4.8
	Bristol-Myers Squibb	3,647	3,556	3,811	3,762	3,731	-0.8
	Abb Vie	1,707	2,369	2,503	2,596	2,855	10.0
	Allergan	675	762	827	915	1,035	13.1
	Actavis	197	287	307	401	622	55.0
	Mylan NV	275	272	291	389	456	17.3
	Zoetis	366	411	407	399	399	-
영국	Glaxo Smith Kline	6,382	5,987	6,245	5,663	5,629	-0.6
	Astra Zeneca	4,356	4,093	5,523	5,243	4,269	-18.6
	Shire	638	643	730	859	933	8.6
	Indivior	-	-	35	41	76	85.4

국가	기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YoY
	BTG	31	41	49	64	63	-1.5
	GW	31	34	35	45	53	18.7
	Vectura	46	55	56	53	47	-10.6
	Hikma	17	24	31	34	39	14.7
	Skye	32	37	26	19	18	-7.5
	Dechra	-	-	-	9	12	34.4
일본	Takeda	4,584	3,171	3,474	3,405	3,411	0.2
	Otsuka	1,375	1,625	1,980	1,923	2,042	6.2
	Daiichi Sankyo	1,867	2,106	2,337	2,235	1,958	-12.4
	Astellas	1,609	2,093	2,614	2,293	1,689	-26.3
	Eisai	1,579	1,916	1,744	1,512	1,278	-15.5
	Mitsubishi iTanabe	740	889	791	848	706	-16.7
	Chugai	595	674	726	768	705	-8.2
	Sumitomo Dainippon	534	550	820	687	635	-7.5
	Shionogi&CoLtd	534	554	612	647	563	-13.1
	Ono	388	425	516	536	475	-11.3
스위스	Roche	9,535	10,740	8,610	9,257	9,745	5.3
	Novartis	7,469	9,070	9,583	9,332	9,071	-2.8
	Cosmo	6	9	7	14	24	68.0
중국	Shanghai Fosun	-	-	-	49	72	47.2
	Zhejiang Hisun	-	-	-	52	66	24.9
	Sichuan Kelun	-	-	22	88	50	-43.5
	Tasly	-	-	-	28	49	73.7
	Guangzhou Baiyunshan	-	-	-	39	47	18.9
	Harbin	-	-	48	36	41	15.7

국가	기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YoY
	Jiangsu Kanion	-	-	-	30	34	12.6
	China Resources Sanjiu	-	-	-	26	33	27.9
	Zhejiang	-	-	-	32	32	-1.9
	Zhejiang Nhu	-	-	-	26	31	22.2

부표 4 의료기기산업 국가별 매출액 순위(2013년 기준 상위 10개사)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기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YoY	CAGR ('09-'13)
한국	OsstemImplant	114	132	147	189	206	8.9	15.9
	Value Added Technology	81	127	129	165	163	-1.2	19.0
	Shinhung	138	150	146	144	118	-18.2	-3.9
	KM Corp	65	105	101	108	118	9.3	15.9
	Solborn	76	113	133	110	94	-14.9	5.6
	I Sens	-	34	45	63	79	26.1	-
	Vieworks	22	27	31	44	63	43.9	30.3
	Huvitz	33	41	49	63	61	-3.6	16.4
	Metabiomed	20	21	23	42	61	45.5	32.4
	Green Cross	-	-	-	61	59	-3.3	-
미국	Johnson&Johnson	23,574	24,601	25,779	27,426	28,490	3.9	4.8
	GE Healthcare	16,015	16,897	18,083	18,290	18,200	-0.5	3.2
	Medtronic	14,599	15,392	15,508	16,184	16,590	2.5	3.2
	Baxter International	12,562	12,843	13,893	13,936	14,967	7.4	4.5
	Stryker	6,723	7,320	8,307	8,657	9,021	4.2	7.6
	Danaher	3,142	4,123	6,639	8,508	8,951	5.2	29.9
	Becton Dickinson	6,987	7,124	7,584	7,708	8,054	4.5	3.6
	Boston Scientific	8,188	7,806	7,622	7,249	7,143	-1.5	-3.4
	St.Jude	4,681	5,164	5,612	5,503	5,501	0.0	4.1
	Abbott Laboratories	7,691	8,792	5,352	4,763	4,914	3.2	-10.6
독일	Siemens	15,331	15,893	16,089	17,535	18,087	3.1	4.2
	B.BRAUN	5,178	5,685	5,925	6,488	6,865	5.8	7.3
	Draegerwerk	2,736	2,913	2,920	3,132	3,263	4.2	4.5
	Paul Hartmann	2,295	2,258	2,265	2,320	2,466	6.3	1.8

국가	기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YoY	CAGR ('09-'13)
	Carl Zeiss Meditec	937	922	1,016	1,108	1,226	10.6	7.0
	Sartorius	862	882	949	1,116	1,088	-2.5	6.0
	STRATEC Biomedical	115	139	151	162	176	8.7	11.2
	Eckert&Ziegler	145	149	150	158	161	1.7	2.6
	Balda	199	97	93	15	78	424.9	-20.9
	Medisana	52	62	61	55	58	4.4	2.4
일본	Olympus	9,923	9,449	10,188	10,249	7,897	-22.9	-5.5
	Terumo	3,063	3,381	3,947	4,671	4,271	-8.6	8.7
	Nipro	1,780	1,903	2,356	2,561	2,559	-0.1	9.5
	Sysmex	1,132	1,243	1,500	1,628	1,546	-5.0	8.1
	Nihon Kohden	1,104	1,145	1,364	1,458	1,407	-3.5	6.3
	Nikkiso	732	835	1,000	1,089	1,101	1.1	10.7
	Fukuda Denshi	906	943	1,084	1,118	1,022	-8.6	3.1
	JEOL	849	907	905	1,005	845	-15.9	-0.1
	Paramount Bed	0	0	0	391	708	81.1	-
	JMS	449	483	548	566	521	-7.9	3.8
스위스	Roche Diagnostics	10,717	11,101	10,378	10,943	11,299	3.2	1.3
	Sonova	1,097	1,424	1,760	1,796	1,892	5.3	14.6
	Nobel Biocare	832	771	737	766	779	1.7	-1.6
	Straumann	711	790	740	750	762	1.6	1.7
	Ypsomed	242	241	285	276	258	-6.5	1.6
	Coltene	146	165	156	173	179	3.8	5.2
	IVF Hartmann	110	126	126	138	140	2.1	6.4
	Lifewatch	123	87	82	80	91	13.7	-7.2
중국	Shinva	130	204	335	487	693	42.2	52.0

국가	기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YoY	CAGR ('09-'13)
	Shandong	182	230	222	236	255	8.3	8.8
	Jiangsu Yuyue	79	134	186	211	235	11.7	31.5
	Blue Sail	70	94	148	214	221	3.1	33.2
	Lepu	83	117	146	163	215	32.0	27.0
	Shanghai Tofflon	45	73	103	132	169	27.9	39.0
	Truking	-	54	64	94	132	39.4	-
	China Resources Wandong	100	91	94	117	126	8.1	6.0
	Zhuhai Hokai	36	51	78	95	122	29.2	36.1
	Dirui Industrial	-	-	57	66	77	15.5	-

부표 5 의료기기산업 국가별 영업이익 순위(2013년 기준 상위 10개사)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기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YoY
한국	I Sens	-	6	8	7	18	140.9
	Osstem Implant	11	12	14	19	17	-13.5
	Vieworks	6	7	7	7	12	69.5
	Value Added Technology	5	9	0	11	12	5.2
	Access Bio	-	2	1	10	10	-0.9
	Sewoonmedical	5	6	5	7	10	50.3
	Interojo	6	5	7	9	10	10.4
	DHP Korea	-	-0	-0	3	6	106.7
	In Body	5	4	3	5	6	31.7
	Metabiomed	4	2	3	5	4	-18.6
미국	Johnson&Johnson	-	8,272	5,263	7,187	5,261	-26.8
	Medtronic	2,623	4,190	3,942	4,294	4,402	2.5
	GE Healthcare	-	2,741	2,803	2,920	3,048	4.4
	Baxter International	2,734	1,890	2,781	2,770	2,588	-6.6
	Danaher	-	431	638	1,154	1,315	13.9
	Stryker	1,594	1,751	1,686	1,741	1,256	-27.9
	Becton Dickinson	1,590	1,582	1,666	1,558	1,254	-19.5
	St.Jude	1,105	1,276	1,114	1,100	1,051	-4.5
	CR Bard	678	726	546	766	1,049	36.9
	Zimmer	1,019	917	1,024	1,047	1,036	-1.1
독일	Siemens	-	839	1,715	2,333	2,720	16.6
	B.BRAUN	-	586	559	603	635	5.3
	Draegerwerk	112	275	277	306	282	-7.6
	Carl Zeiss Meditec	111	118	139	158	179	13.5

국가	기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YoY
	Sartorius	34	96	121	141	151	7.2
	Paul HartmannG	137	137	139	120	140	17.2
	STRATEC Biomedical	21	24	28	21	27	30.4
	Eckert&Ziegler	22	25	30	26	15	-44.1
	Pulsion	3	6	9	13	12	-3.9
	Geratherm	3	3	2	1	1	-13.6
일본	Terumo	546	677	716	666	570	-14.4
	Sysmex	150	165	218	232	231	-0.3
	Olympus	-23	592	416	95	224	134.6
	Nihon Kohden	83	97	124	145	142	-2.4
	Paramount Bed	-1	-0	-0	64	119	86.9
	Nipro	138	180	138	177	115	-35.0
	Fukuda Denshi	64	69	91	110	111	0.4
	Hogy	60	86	89	94	86	-8.0
	Nikkiso	30	50	63	74	77	4.3
	Nakanishi	70	98	100	77	67	-12.6
스위스	Roche Diagnostics	-	2,347	2,321	2,331	2,348	0.7
	Sonova	285	239	295	319	164	-48.6
	Straumann	160	176	85	69	130	88.3
	Nobel Biocare	184	114	93	91	88	-3.7
	Coltene	20	20	13	19	22	14.6
	IVF Hartmann	12	16	16	19	20	5.8
	Ypsomed	27	13	10	6	4	-31.3
	Lifewatch	27	-5	-28	4	-2	-147.8
중국	Lepu Medical	48	71	85	75	70	-7.1

국가	기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YoY
	Shanghai Tofflon	12	24	39	42	53	25.9
	Shinva	7	11	21	34	49	43.6
	Jiangsu Yuyue	17	26	35	42	42	-0.2
	Zhuhai Hokai	2	7	13	20	30	49.8
	Sinocare	3	9	16	22	28	24.8
	Shandong	26	31	24	25	27	7.9
	Truking	-	9	11	17	23	34.3
	Dirui Industrial	-	-	13	13	15	14.9
	Ningbo David	5	7	10	14	12	-10.8

부표 6 의료기기산업 국가별 R&D투자 순위(2013년 기준 상위 10개사)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기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YoY
한국	Value Added Technology	1	4	4	4	8	76.6
	Curexo	1	3	2	4	7	71.0
	Solborn	3	3	3	5	7	35.9
	I Sens	-	2	3	5	6	23.2
	Infopia	-	-	-	4	6	50.2
	Vieworks	1	1	1	4	5	35.2
	Huvitz	1	2	2	3	4	16.5
	In Body	2	3	4	2	3	20.0
	OsstemImplant	2	2	2	3	2	-6.5
	KM Corp	0	0	1	1	2	23.8
미국	Johnson&Johnson	-	1,803	1,751	1,681	1,783	6.1
	Medtronic	1,355	1,424	1,472	1,490	1,557	4.5
	Baxter International	917	915	946	940	1,015	8.0
	GE Healthcare	-	989	1,037	925	959	3.7
	Boston Scientific	1,035	939	895	886	861	-2.8
	St.Jude	560	631	705	676	691	2.2
	Danaher	-	266	419	494	551	11.5
	Stryker	336	394	462	471	536	13.8
	Becton Dickinsonand	405	423	470	472	494	4.7
	Abbott Laboratories	686	931	378	365	343	-6.2
독일	Siemens	-	1,431	1,512	1,689	1,633	-3.3
	B.BRAUN	-	200	231	246	290	17.9
	Draegerwerk	214	198	208	260	277	6.4
	Carl Zeiss	93	99	113	120	132	9.8
	Sartorius	57	57	57	65	66	1.4

국가	기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YoY
	STRATEC Biomedical	-	-	5	5	7	49.5
	Paul Hartmann	-	-	-	3	4	23.1
	Pulsion	3	3	4	3	3	-13.0
	Eckert&Ziegler	3	2	1	1	1	47.5
	Aap Implantate	-	2	1	1	1	-20.0
일본	Olympus	465	385	466	400	302	-24.6
	Terumo	174	188	245	294	288	-2.0
	Sysmex	109	120	149	144	129	-10.5
	Nihon Kohden	45	45	61	67	68	1.1
	JEOL	57	49	53	53	46	-14.0
	Fukuda Denshi	-	34	39	40	36	-10.3
	Asahi Intecc	11	15	23	23	20	-14.9
	Eiken Chemical	21	21	23	27	20	-27.1
	JMS	14	15	18	17	13	-23.4
	Shofu	11	11	13	14	13	-9.6
스위스	Roche Diagnostics	-	835	844	888	1,097	23.6
	Sonova	68	83	117	129	120	-6.8
	Nobel Biocare	36	42	32	69	86	23.1
	Lifewatch	4	5	7	7	8	12.1
	Coltene	3	5	5	5	5	-14.0
	IVF Hartmann	-	-	-	-	-	-
	Straumann	38	43	42	-	-	-
	Ypsomed	9	7	-	-	-	-
중국	Jiangsu Yuyue	-	-	-	11	13	11.1
	Shanghai Tofflon	-	-	-	8	12	63.5
	Lepu Medical	-	-	-	9	12	38.8

국가	기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YoY
	Shinva	-	-	-	6	9	60.7
	Jiangsu Skyray Instrument	-	-	-	5	7	25.3
	Truking	-	2	3	6	6	4.6
	Zhuhai Hokai	-	-	-	5	6	11.6
	Blue Sail	-	-	-	4	4	1.5
	Sinocare	-	-	-	-	3	-
	China Resources Wandong	-	-	-	3	3	15.6

부표 7 화장품산업 국가별 매출액 순위(2013년 기준 상위 10개사)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기업	2013년	YoY
한국	AMOREPACIFIC CORP.	3,320	15.1
	LG HOUSEHOLD & HEALTH CARE	1,760	14.7
	ABLE C&C	398	-2.2
미국	PROCTER & GAMBLE	20,500	-1.0
	THE ESTÉE LAUDER COS.	10,390	4.1
	AVON PRODUCTS	7,100	-7.1
	JOHNSON & JOHNSON	6,000	2.2
	COTY	4,540	-1.0
	LIMITED BRANDS	3,900	8.3
	MARY KAY	3,400	17.2
	COLGATE-PALMOLIVE CO.	3,370	1.8
	ALTICOR	2,610	-
	GUTHY-RENKER	1,800	4.1
프랑스	L'ORÉAL	30,520	2.3
	CHANEL	5,840	6.0
	LVMH MOËT HENNESSY LOUIS VUITTON	4,940	2.9
	GROUPE YVES ROCHER	2,380	1.5
	GROUPE CLARINS	1,730	1.6
	L'OCCITANE EN PROVENCE	1,400	1.3
	GROUPE PIERRE FABRE	1,320	3.8
	SISLEY	809	5.0
	NAOS LIGHTHOUSE	339	12.5
	ALÈS GROUPE	290	6.1
일본	SHISEIDO CO.	7,770	13.6
	KAO CORP.	5,820	6.0

국가	기업	2013년	YoY
	KOSÉ CORP.	1,840	6.9
	POLA ORBIS HOLDINGS	1,820	5.6
	MANDOMCORP.	685	11.2
	DHC CORP.	560	-4.2
	NIPPON MENARD COSMETIC CO.	530	-4.4
	FANCL CORP.	470	0.9
	HOYU CO.	456	3.0
	FUJIFILM HOLDINGS CORP.	391	16.3
독일	BEIERSDORF	6,440	1.3
	HENKEL	4,440	-0.6
	COSNOVA	329	16.7
	MÄURER & WIRTZ	236	4.7
	ARTDECO COSMETIC GROUP	233	6.2
	DR. WOLFF-GRUPPE	209	3.3
	DR. BABOR	169	5.6
중국	SHANGHAI JAHWA UNITED CO.	643	8.8
	JIANGSU LONGLIQI GROUP CO.	305	3.3
	JALA GROUP CO.	302	8.6
	LI & FUNG	221	-
	GUANGDONG MARUBI BIOTECHNOLOGY CO.	157	19.5

2014년
보건산업 국가경쟁력 분석
경영성과편

발행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행인 / 정 기 택

발행일 / 2014년 12월 31일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313-7593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www.khidi.or.kr

보건산업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KHISS보건산업 통계시스템



보건산업통계시스템은 유용성 높은 보건산업 통계의 수집·생산·제공을 통해 국내 보건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의료서비스, 고령친화산업 등 보건산업은 신성장동력 및 서비스 산업의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이러한 보건산업에 대한 국·내외 흐름을 KHISS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No.1 보건산업 통계포털, KHISS보건산업통계



모바일 홈페이지(<http://m.khiss.go.kr>)는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상관 없이 웹을 이용하여 언제나 보건산업통계를 조회할 수 있으며,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KHISS 모바일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는 산업

주간/월간 동향

글로벌보건산업동향

보건산업브리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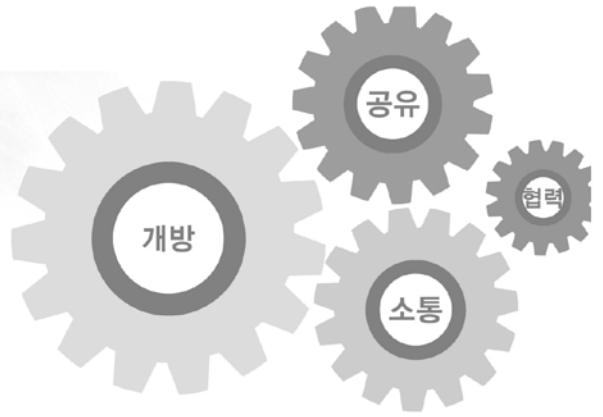
주요통계



KHISS 보건산업통계
Korea Health Industry Statistics System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해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새 시대를 정부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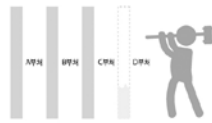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정부3.0



공공정보 공개확대로
「국민의 알권리」충족



국민의
정부정책 참여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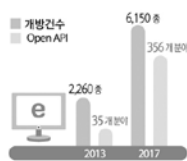
정부 내 칸막이 제거로
통합적 행정서비스 제공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접근 제고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으로
새로운 일자리창출



정보공유와 디지털협업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구현



창업과 기업활동
지원 강화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2014년 보건산업 국제경쟁력 분석 [경영성과편]



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TEL : 043-713-8000(代) FAX : 043-713-8902 www.khidi.or.kr

KHISS 보건산업통계
www.khiss.go.kr